

2018-19

Rotary
District 3650



NEW HISTORY



세상에 감동을
BE THE INSPIRATION



초심으로 기적을
BACK TO THE BASICS

2018 9

로타리는 당신 인생의 색깔을
찾아 줍니다

Rotary helps your own
Color of LIFE

Rotary

- 로타리 사회적 공헌기업 KCC정보통신(주) · (주)지엔피링크(페스티벌울)
- 숨은 리더들의 숨은 이야기 정한용 (지구홍보대사 · 사무부총장)
- 자랑스런 로타리안 시리즈 2 윤상구 로타리재단 이사
윤영석 로타리재단 前이사

로타리서울 매거진은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원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로타리 서울

RI District 3650 Governor, Saeho David Chang

ROTARY SEOUL

2018 김장 나눔 합동 봉사활동 참여



제5회 서울김장문화제
SEOUL KIMCHI FESTIVAL

- 11월 3일(토)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광장 -

국제로타리 3650지구 2018 김장 나눔 합동 봉사활동이 오는 11월 3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서울시 주최, 제5회 서울시 김장문화제의 일환으로 함께 하는 금번 2018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은 오는 11월 3일(토)에 오후 1시 30분부터 약 4시간 30분동안 서울시청 광장에서 우리 로타리 회원 및 가족, 인터랙트, 로타랙트들과 일반 서울 시민, 기타 기업체 등 약 2천여명이 참여하여 서울시가 준비한 김장 재료로 김장을 직접 담그는 봉사활동입니다. 또한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로 일괄 기부됩니다.

우리 지구 로타리안과 가족, 그리고 인터랙트, 로타랙트, 클럽장학생 등 신세대 봉사파트너 등 총 700명 이상이 이번 김장 봉사 활동에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클럽별로 현장봉사 인원을 확정하여 지구 사무국으로 10월 26일(금) 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 김장 나눔 합동 봉사활동 참가안내 ❖

일시 : 11월 3일(토) 오후 1시 30분 집결

장소 : 서울시청 앞 광장 (지하철 1호선, 2호선 시청역)

참석 대상 : 로타리클럽 회원 및 가족 / 인터랙트, 로타랙트

클럽단위로 참가자 명단을 지구사무국으로 알려주세요.

※ 참가신청은 10월 26일(금)까지 클럽단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 봉사 참가 성금 : 1인당 1만원

(참가인원을 확정하여 신청서와 함께 클럽단위로 송금 바랍니다)

송금계좌 : KEB하나은행 630-008116-430

예금주 : 국제로타리 3650지구

※ 문의처 : 국제로타리3650지구 사무국

Tel : 02-707-3650 / Fax : 02-702-3650

이메일 : rotary3650@daum.net

* 2018 김장봉사 당일 : 11월 3일(토) 주요 일정(안)

13:30 로타리안 및 가족, 인터랙트, 로타랙트 김장봉사
참가자 전원 집결

등록 접수 (위생복장 및 개인용품 지급 및 사전교육)

13:40 봉사 인원 배치 / 안내

14:00 개막식 (준비운동, 축하공연, 김장 버무림 안내 등)

14:30 김장 버무림 봉사 및 포장 / 김장 나눔 브릿지 공연

16:30 소품회수 청소 뒷정리

17:00 김장 및 보쌈 퍼포먼스

18:00 행사 종료 및 해산 - 클럽별로 개별 저녁식사 (권장)

※ 1) 클럽마다 갖고 계신 봉사조끼를 착용하고 오시기를 권장합니다.

2) 복장 : 봉사활동하기에 편한 복장, 쌀쌀한 날씨를 대비하여 활동 편한 방한복 권장

3) 로타랙트, 인터랙트클럽이 참여할 경우, 스폰서클럽에서는 이들의 저녁식사 및 간식 등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로타리 소개

우리 로타리는 혁신을 통해 이 세상의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적용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회원으로 보유한 단체이다. 우리 회원들은 소아마비와 기타 질병을 퇴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해력을 증진할 뿐 아니라 평화를 구축하고자 매년 수백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한다. 또한 세계 전역에서 활동하는 120만여 회원들이 전개하는 봉사 노력을 통해 우리가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의 영향력을 극대화한다.



국제 로타리 3650지구는 현재 83개 클럽과 2,2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20여억 원 규모로 200여 개의 봉사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650지구는 매년 국제교류 기부와 청소년 지원사업, 빈곤 국가 지원 등 다양한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로타리 강령 (The Object : Rotary)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사업 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취하고 육성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힘써 행하는데 있다.

- 첫째,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우의 범위를 넓힌다.
- 둘째, 사업과 전문 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 할 수 있도록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 생활이나 사업 및 사회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업인과 전문 직업인들은 세계적 우의를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과 평화를 증진한다.

● 네 가지 표준 (The Four-Way Test)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1. 진실한가? Is it the TRUTH?
2. 모두에게 공평한가? Is it FAIR to all concerned?
3.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Will it build GOODWILL and BETTER FRIENDSHIP?
4. 모두에게 유익한가? Will it be BENEFICIAL to all concerned?

로타리안이 되어야 하는 이유

- **직업적 유대 강화** | 로타리는 사업과 전문 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각자 자기 직업을 통해서 봉사한다.
- **봉사의 기회** | 로타리안들은 국제, 지역사회 차원에서 봉사 활동으로 보건의료, 기아와 빈곤 추방, 문맹 퇴치, 재해 구호, 환경정화 등을 수행한다.
- **자아 성장 및 개발** | 회원들은 로타리를 통해 자아 성장 및 개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
- **친목** | 1905년에 창립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며, 오늘날 전 세계에는 200여 국가에 34,443개 로타리 클럽이 있다.
- **문화적 다양성** | 로타리클럽은 인종이나 정치, 언어,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화가 개방되어 있다.
- **훌륭한 시민의식** | 클럽들간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은 봉사화 교류의 수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 **세계이해** | 로타리 회원들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이해하고, 평화 촉진은 로타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 **즐거움** | 각 로타리클럽과 지구는 회원들의 개인 생활이나 공적 생활에서 벗어나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을 제공한다.
- **가정 기반** | 로타리는 세계 최대의 청소년 교환과 연구단 교환, 장학금 프로그램을 스폰서 한다.
- **윤리적 환경의 조성** | 로타리안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 네가지 표준을 실천한다.

로타리안이 되는 법

많은 사람들이 로타리 가입하기 페이지를 통해 가입에 대한 관심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문의가 특정 클럽이나 지구에 배정되면 해당 클럽 혹은 지구리더에게 이를 알리는 공지 이메일을 발송됩니다. 이메일과 문의 관리 페이지를 통해 문의 내역을 자주 확인하세요. 새로운 회원들이 연락을 기다립니다.

3650지구본부 연락처 : Tel 02 707 3650 / E-mail rotary3650@daum.net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접수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CONTENTS

2018 September



국제로타리 비전 선언문(Vision statement)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창조적 변화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Together, we see a world where people unite and take action to create lasting change—across the globe, in our communities, and in ourselves.”

메시지

RI회장 메시지	07
9월 총재 메시지	08

특집

로타리 사회적 공헌기업 - KCC정보통신(주) (주)지엔피링크(페스티벌을)	16
숨은 리더들의 이야기 - 지구 홍보대사 정한용	20
자랑스러운 로타리안 ❶ - 윤상구 로타리재단 이사	22
윤영석 前로타리재단 이사	24

뉴스

지구소식	26
RI 소식	33
클럽소식	34
총재 공식방문	40
신세대소식	46

재단기부

로타리재단 글로벌 보조금사업 보고	54
로타리재단 기부금은 어떻게 쓰여지나	56
클럽별 재단기부 현황 및 8·9월 기부자 소개	60

회원증강

스타키 로타리클럽, 창립 후 첫 봉사활동	66
클럽별 회원 현황	68
신입회원과 추천 유공 로타리안	70

봉사

서울신용산로타리클럽의 국제교류	72
서울중앙로타리클럽의 파파 봉사	74
한성로타리클럽 직장주회	76

교육

로타리클럽의 재정투명화의 필요성과 방안	78
-----------------------	----

리더십

칼럼: 변화의 힘, 사랑과 끈질김 - 장세호 총재	80
-----------------------------	----

안내

2018-19년도 로타리안 분담금 안내	82
-----------------------	----

발행인 총재 장세호 **편집위원장** 황순신

편집위원

사무총장 김 중 **사무부총장** 한태숙, 박윤희, 김재철, 정한용

사무국장 김정호

지역대표 한태숙, 최경순, 황순신, 박상진, 연기영, 강무진, 이영석, 박현영, 남궁근, 김학자

발행처 국제로타리 3650지구

주소 03169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02, 203호

Tel 02 707 3650 **Fax** 02 702 3650 **E-mail** rotary3650@daum.net

발행일 2018년 9월 21일 **편집디자인** (주)지엔피링크

우리의 로타리 스토리에 지역사회 리더들을 초청합니다



배리 라신(Barry Rassin)
국제로타리 회장(2018-19)

만약 우리가 어느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로타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촬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로타리안을 제외한 그 누구도 하나의 단체가 그토록 많은 일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믿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 동안 촬영한 사진을 통해 사람들은 로타리 자원봉사자들이 소아마비를 퇴치하고, 소액용자를 실시하며, 식수를 공급하고, 청소년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등의 수많은 활동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로타리의 글로벌한 분포,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려는 회원들 덕분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주위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연결망을 확보하며 즉각적인 실천에 나설 수 있습니다. 클럽의 회원 구성이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문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케냐에서 로타리는 50%에 가까운 여성회원을 확보했습니다. 회원들의 연령대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고 멘토로부터 배우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로타리가 지향하는 바를 이들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이 지역사회를 보다 잘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자원은 바로 로타랙트입니다. 전 세계 25만 명에 달하는 로타랙터는 우리들처럼 글로벌하며, 이미 봉사와 리더십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입니다. 로타랙터는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이들과 팀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행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시고 클럽에 초청하십시오. 전 세계의 헌신적인 로타랙터들은 로타리 회원이 되고 있으며, 로타랙트 멤버십을 유지한 채 새로운 로타리클럽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로타리를 필요로 하며 로타리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강력한 클럽과 열성적인 회원을 필요로 합니다. 로타리 입회에 관심을 보인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rotary.org에 있는 '로타리 가입하기'를 활용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로타리 입회에 관심을 보인 이들을 적절한 클럽과 연결시킵니다. 회원이 클럽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를 갖게 하십시오.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함께하는 활동이 즐거운 클럽을 만듦으로써 회원들에게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보람을 안겨줍니다.

수많은 로타리 스토리를 우리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나눔의 정신을 갖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리더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감동을 안겨주고, 로타리가 인류애를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독일 함부르크에서 소중한 순간을 만끽하세요

www.mediaserver.hamburg.de / Cooper Copter GmbH

제110차 로타리 국제대회에서 배리 라신 2018-19 RI 회장과 함께 잊지 못할 감동과 우정 그리고 즐거움의 한 주를 경험하세요. 세계 각지에서 모인 동료 참가자들과 연결을 이룩하고 영원히 기억에 남을 소중한 순간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1차 사전기한에 등록하시면 US\$395의 할인가가 적용됩니다.

RICONVENTION.ORG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세요



로타리 국제대회
독일 함부르크 2019년 6월 1~5일

로타리안의 자부심과 행복한 기부



장세호 총재
국제로타리 3650지구

로타리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조직입니다. 냉혹하고 외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아름다운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나아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지도자 되는 분들과 함께 봉사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우리들 자신을 더욱 더 성숙한 존재,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의 가치 높은 존재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로타리는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아름다운 “인생행복” 동아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타리는 어떤 조직인가?

로타리는 지난 100년동안 어마 어마한 일을 해 왔습니다. 47억불의 기부금을 모아 37억불을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을 위해 써왔습니다.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들에 속한 35,000개 이상의 클럽들과 120만명의 로타리안들은 각각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사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로타리 조직을 통해 글로벌 봉사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 및 분쟁예방과 해결, 질병 예방 및 치료, 수자원 및 위생, 모자보건, 기본교육과 문해력,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이렇게 6대 초점분야에 우리의 자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봉사프로젝트가 (1)Effectiveness(정말 효력이 있는 문제 해결책인지), (2) Measurability(효력의 측정가능성), 그리고 (3)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의 criteria(기준)에 맞는지 명확하고 공평한 판단시스템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효율성과 현실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봉사가 실제 일어날 지역의 클럽회원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협업의 체계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 모든 에너지의 집중과 관리가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로타리의 글로벌 봉사 시스템이자 또한 차별화된 힘인 것입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한 시스템을 통해 봉사활동이 이루어 지기에 우리가 기부하는 자금의 91%가 실제 봉사 대상자 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타 봉사조직들은 50%를 실제 봉사에 쓰기에도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기에, 우리 국제로타리는 국제 평가조직인 Navigator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봉사 업적을 이루어 나가는 조직으로 인정을 받고 세계 제1위의 영광스러운 위치를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켜온 것입니다.

로타리의 가치

로타리는 로타리강령과 4가지 표준을 중요시 여기는 조직입니다. 로타리강령은 우리 로타리안들이 봉사의 이상을 사업의 모든 활동분야에 적응시키어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표준은 어떻게 강령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HOW로서 진실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선의와 우정을 더하면서 모두에게 유익한 판단과 행동을 취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헌이라 함은 먼저 나 자신이 이 사회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나의 모든 활동이 사회에 좋은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과 생명의 가치가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타리 강령을 실행하여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나, 우리가 클럽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 봉사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 하기 때문입니다.

로타리 봉사의 순위

로타리의 5대 봉사는 클럽봉사, 직업봉사, 사회봉사, 국제봉사 그리고 청소년봉사입니다. 우리 로타리는 지난 100여년 동안 사회봉사와 국제봉사에 큰 비중을 두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제1차대전과 제2차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려 헐벗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현실이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최 우선의 과제로 우리 눈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연민의식에 사로잡힌 우리 로타리안들은 팔을 걷어 부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과 세계경제가 많이 발전되었고 또한 정부도 많이 부강해져 사회의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도주의적 봉사를 할 때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더 낮은 곳을 향해 우리의 힘

을 집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 로타리의 목적인 로타리 강령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타리강령에 의한 우리 로타리안들의 최우선의 과제는 바로 직업봉사를 통해 사회적 존재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은사를 클럽활동에 적용하여 클럽봉사에 열중하면서 로타리조직을 잘 활용하여 인도주의적 지역봉사와 국제봉사를 이루어 나가고, 또한 미래 사회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들 위한 봉사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타리 봉사의 순위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눈을 돌려 로타리강령이 주문하는 직업봉사에 더욱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 부을 때가 왔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시대적 봉사라 할 것입니다.

행복한 기부

우리가 로타리봉사사업을 위해 기부를 하는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의 행복이라 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마음을 기부할 때 엄청난 행복을 느낍니다. 이러한 기쁨은 오직 경험을 통해 얻어집니다. 우리는 로타리를 위해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구를 위해 기부하는 것입니다. 로타리는 오직 하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랑을 그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도 우리며, 또한 그 통로 자체도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타리에 기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들 자신에게 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의 궁극적 대상은 오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전 세계에 펼쳐나가고 있는 봉사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부할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부해야 할 이유 다섯 가지 (5개)

우리의 축복과 능력은 나눠 줄 때에 그리고 나눔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존재가 현실화 되고 사회가 그 축복과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은 축복과 능력을 가진 자는 오직 물질과 잠재력을 가진 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부해야 할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 5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살아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들여다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삶이 이어나가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희생되었고 또 희생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고 일어난 침대부터 시작하여 치약, 칫솔, 비누, 아침식사, 자동차, 고속도로, 지하철, 버스, 빌딩, 사무실, 식당, 가구, 운동기구, TV, 컴퓨터, 핸드폰, 우체국서비스, 등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기에 그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3.2kg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평생 102톤의 쓰레기를 만들어 내어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미안하고 감사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내가 아침에 먹은 과일을 따다 나무에서 떨어져 반신불수가 된 한 아버지의 어린 아들이 가정이 가난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꿈을 꾸어볼 기회도 갖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타고 가는 자동차와 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에 누군가가 부상을 입어 죽어 그 가정이 가난과 병에 허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재단기부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의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주고 싶으니까: 우리 로타리안들은 사회적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슬픔과 아픔을 보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보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로타리안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즉 이 세상을 좀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결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세계에 흩어진 로타리안들이 힘을 합하여야 합니다. 소아마비 박멸도 그 예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국제봉사 프로젝트를 이행하려면 자금면에서 그리고 집행면에서 우리모두가 협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세상을 떠날 때 어차피 모든 것을 두고 떠납니다. 후손에게 자산을 넘겨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최소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받은 재산의 일부라도 사회를 위해 두고 떠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준 이세상을 향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예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내가 못 이룬 봉사의 꿈을 타인에게 혹은 후세에게 부탁하는 의미에서 자산의 일부를 남기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로타리안들의 봉사의 꿈을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니까: 우리의 모든 자선행위는 우리들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남에게 나의 것을 나눈 만큼 우리는 더욱 행복해 집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은 마약과 같이 주면 줄수록 더욱 행복해지기에 기부 자체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인생에 있어 나만의 행복문화가 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타리안들입니다. 그냥 로타리안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진 행복한 로타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복은 먼저 나 자신이 로타리강령과 4가지표준을 준수하면서 나의 직업과 기업활동의 사회적 공헌가치를 높일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제사회를 위해 여러 봉사에 참여하고, 또 내게 주어진 축복과 능력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로타리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들어 내는데 꼭 필요한 아름다운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인인 자원봉사조직입니다. 우리모두가 최선을 다해 재단기부에 참여합시다.

“우리의 축복과 능력은 나눠 줄 때에 그리고 나눔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존재가 현실화 되고 사회가 그 축복과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은 축복과 능력을 가진 자는 오직 물질과 잠재력을 가진 자일 뿐입니다.” ☺

하루에 3천 원짜리 커피 한 잔을 나누실 수 있으신가요?



당신도 PHF 기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기부

RID3650 LOVE VITAMIN



PHF

Energizer TM

하루에 커피 한 잔의 나눔



행복한 기부

Rotary Social Enterprise

로 타 리 사 회 적 공 헌 기 업 03

기술로 전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사회적 공헌기업의 역할

KCC정보통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정섭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ICT 전문기업

상상을 현실로!

ICT 혁신을 통한 편리한 세상

KCC정보통신은 1967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SI기업으로서 지난 50여 년간 기업의 정보화를 위해 힘써왔다. 이주용 회장이 1967년 컴퓨터 판매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한국전자계산소(Korea Computer Center)를 설립 하면서부터 현재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IT전문가라는 수식어를 남기며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KCC정보통신은 1967년 5월 국내 최초의 고성능 컴퓨터인 'FACOM-222'를 도입했다. 1976년 국내의 주민등록번호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1981년 10월에는 철도 승차권 예약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현재까지 한국철도공사와 끈끈한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KCC정보통신은 SI전문기업이라는 수식어 외에 또 다른 수식어를 가진다. 바로 IT인재 양성소다. 1968년 정부 전자정보처리시스템(EDPS)요원들을 훈련 시키면서부터 시작된 국내 IT인재 양성 활동은 1993년 KCC정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내에서 IT인재를 배출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해냈다. 현재는 금융·공공·국방·통신 등 가장 뛰어난 기술 분야에 주력해 고객에게 최고의 S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도 기준 매출 천억 원을 돌파하며 벤처 천억 클럽에 가입되었으며, 최근 2017년도 10월에는 창립 50주년을 맞이 하였다.

KCC정보통신은 국내외 유망 IT업체는 물론, 방송·통신사업자와 손을 잡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인간의 행복을 위한 디지털토피아 건설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CC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갈 핵심 가치는 인재(Human), 고객(Accompany), 열정(Passion), 신뢰(Promise), 실용(Yield) 등입니다. 각 핵심가치의 머리글자를 따면 'HAPPY'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 '행복'이 KCC가 추구하는 가치이며, 로타리 사회적 공헌기업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KCC정보통신은 로타리 사회적 공헌기업으로서 기술로 인류에게 행복한 미래를 선물할 것이다.



사회공헌 활동

KCC 정보통신은 이미 회사 내부에 봉사팀을 별도로 만들어 많은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로타리 사회적 공헌기업에 동참하여 직원들도 로타리안이 되어 더 뜻 깊은 사회적 공헌을 펼치고자 한다.

애란원 바자회 봉사활동 |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애란원은 '사랑을 심는 곳'이란 의미로 미혼모 생활시설로서 미혼으로 임신, 출산하여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숙식 보호, 상담, 교육 등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및 여성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평화의 집 | 경기도 양평군 양동읍 소재의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매년 겨울 전 계열사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김장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알로시오 초등학교(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 봉사활동 | 코암로타리와 이콤포사단(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는 봉사모임)이 공동 진행하는 봉사 활동에 협력하여 참여하고 있다.

빛나라 공부방 아동 후원 | 빛나라 공부방은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KCC정보통신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2회 영화 관람 및 물품과 금전적 후원을 하고 있다. 사내 봉사동호회인 '이웃사랑 동호회'는 빛나라 공부방 후원 및 다양한 나눔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 외, 사랑의 달팽이(청각장애인)에 인공와우 수술지원, 지구촌교회(이주민)를 위한 매주 셋째 주 수요일 식사준비 및 배식, 한국코드클럽(청소년대상 교육)의 쉽게 배우는 S/W교육 지원, 강서구 문화센터(관내 기초보호생활)에 매년 11월 마지막 금요일 김장봉사를 계획하고 있다. 🍅



▶ KCC홀딩스 이상현 부회장(코암로타리클럽)과 KCC 임직원들, 장세호 총재, 김중 사무총장, 황순신 편집위원장

모두가 행복한 회사 | 임직원 행복지수 1위
모두가 함께하고 싶은 회사 | 고객만족도 1위
모두가 자랑스러운 회사 | ICT분야 기술력

가족사 현황

KCC홀딩스 • 종하E&C • KCC모터스(HONDA) • KCC오토(Mercedes-Benz) • 아우토슈타트(PORSCHE) • KCC오토모빌(Jaguar LandRover) • 플러스렌터카 • 플러스오토 • 종하장학회

Rotary Social Enterprise

로타리 사회적 공헌기업 04

축제로 전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사회적 공헌기업의 역할

페스티벌을은 이제 창간한지 9개월 정도 지난 축제 전문 매거진이다. 월간지로 매월 국내외 축제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 페스티벌을의 발행인은 황순신 대표로 기획, 디자인, 제작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지엔퍼링크를 12년째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교육 콘텐츠와 관련된 인정 교과서의 편집디자인 136책을 수행하여 교육부 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콘텐츠를 다룬다는 것은 꽤 매력적인 일입니다. 더구나 축제 콘텐츠는 인류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파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축제는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로 축제를 의미하는 ‘festival’은 성일(聖日)을 뜻하는 ‘festivali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이것은 축제의 뿌리가 종교의례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종교적 기원으로서의 축제는 강력한 사회통합력을 지니며 성스러운 존재나 힘과 만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축제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고,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 기능하는 일종의 종교적 형태, 해방을 향한 문화, 인간의 유희적 본성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것 등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된다. 그렇다면, 페스티벌을이 표현하고자 하는 축제는 무엇일까?

“축제는 소통과 공감의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꿈을 꾸며 화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글로벌화되는 축제의 모습이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때, 화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즐거움을 기본으로 준비된 축제장이라면 금상첨화 이겠지요. 요즘은 더욱 흥미롭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축제장을 찾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이 풍부합니다.”

페스티벌을은 로타리 사회적 공헌기업으로서 축제 콘텐츠를 널리 알려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을 꿈꾼다. 이것은 곧 현실이 되어 모두가 문화의 풍요를 누릴 것이다.

월간 페스티벌을 발행인 황순신(서울예장RC)

문화, 예술, 역사
미래를 향한 꿈
세상과 세상을
축제로 하나되게



▲ (상) 타이완 국제열기구축제를 만들고 진두지휘하는 타이완관광청 천수웨이 부국장(중)과 타이둥현 교통관광발전처 이지봉 과장(우)과 함께
 ◀ (좌) 요나고 가이나 마쓰리 축제 취재시 요나고시 이기 타카시 시장과 함께



축제. 그 속에 역사, 문화, 예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 있다.

최근 문화관광축제가 성행하고 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의 활기를 불어일키며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글로벌 축제는 방한 관광과 더불어 관광 수입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준다. 즉, 축제가 산업으로도 연계되는 것이다. 축제와 산업이 맞물리면서 그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그것은 축제장에서 만나는 많은 현상들로부터 가늠할 수 있다.

가족의 친화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축제는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어 여행과 더불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도 가족과 함께 축제를 즐기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다. 그것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해외여행객까지 작은 그룹들이 모여 큰 그룹이 되며 이것이 축제라는 커다란 문화 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축제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에너지는 그 공간을 가득 채워 전파 되고, 그 에너지를 느끼기 위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현시대에 있어서 '봉사'란 무엇일까? 그 개념과 가치, 역할은 아마 10여 년 전과 다를 것이다. 혼밥, 혼술이란 신조어가 생길 만큼, 세상은 개인주의화되고 있다. 이 시대에 함께 하는 방법, 화합하는 방법, 그리고 나누는 방법을 알리고 실천하며 사회의 소외된 이들도 이 모든 것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봉사가 아닐까? 즉, 축제장에 녹아 있는 마음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축제로 인한 또 다른 개념의 '봉사'인 것이다. ☀

창의적 콘텐츠로 소통의 길을 만드는 기업

가족사 현황

(주)지엔피링크 • (주)지엔피유니온 • (주)지엔피에듀 • (주)지엔피원 • 지엔피북스 • 페스티벌을 • (사)열린사회

황순신 대표는 영락보린원, 암사재활원 봉사 활동과 봉사단체이면서 사회적 기업인 열린사회의 공동대표로서 장애인복지유공 표창(2013, 경기도),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복지 표창(2015, 광명시)을 받으며, 독거노인 집 내부 수리 및 개선 봉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주)버추얼 홀딩스 정한용 회장
(지구 홍보대사, 서울인유RC)

사람을 향한 봉사 회원을 위한 리더



우리나라에 정한용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가 20년 이상 로타리안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뛰어난 연기자에서 민의를 돌보는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다시 배우와 방송 진행자, 사업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정한용 3650지구 홍보대사를 만났다. 그는 특유의 거침 없는 화법으로 인터뷰를 주도했다. 물질적 가치만 도드라지고 삶의 방향과 가치를 밝혀줄 ‘철학’이 부재한 시대에 로타리와 로타리안이 가져야 할 ‘철학’에 대한 정한용 지구 홍보대사의 생각을 들었다.

로타리안들이 지구 홍보대사님을 ‘숨은 리더’로 추천했습니다. 사회적 봉사에 대한 지구 홍보대사님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봉사에도 역지사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는 것이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만능의 개인주의가 만연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할 책임이 사회의 리더인 로타리안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눔은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 우리의 선의가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수용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다. 나눔을 건네는 사람이 기분 좋은 봉사가 아니라 받는 이의 인간적 자긍심까지 고민하고 지켜줄 수 있는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홍보대사님의 ‘숨은 리더’로서의 봉사활동이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는 동방사회복지회를 회원들과 정기적으로 찾아가고 필요한 물품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있는 아이들은 돌도 되지 않은 영아들이지만, 아직 자신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쉽게 떼를 쓰지도 못하고 목청껏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습니다. 아이들도 아는 것이지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사랑해 줄 엄마와 아빠가 없다는 것을요. 이 아이들은 저를 비롯해 자기를 안아주는 사람과 계속 눈을 맞춥니다. 자기를 알아보고 사랑을 달라는 것인데, 그 들의 맑은 눈을 들여다 보면 천국이 보입니다. 이 곳의 아이들은 돌이 지나면 위탁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위탁가정으로 가게 되면 입양의 가능성, 새로운 부모를 만나게 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가



정한용 지구 홍보대사의 소속 클럽인 서울인유로타리클럽은 동방사회복지회 미혼모 영아들을 돌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함께 가는 회원들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통해, 봉사를 통해 기쁨과 슬픔, 행복과 아픔을 공유하게 됩니다.

로타리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로타리는 사람을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로타리 회원 중에서 로타리를 개인의 인맥을 쌓기 위한 사교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타리가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로타리안으로서의 공이적, 이타적인 목적에 대한 의식은 희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로타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맥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순간 무너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유지할 때 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사회는 조직이고 네트워크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의 가르침 중에 ‘불천지지(不踐之地)’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밟지 않은 땅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인데, 우리의 발이 밟을 수

있는 좁은 길만 있다면 양 옆이 낭떨어지라서 그 길이 위험해서 갈 수 없는 것이고 밟지 않는 많은 불천지지 덕분에 넓을 별판을 우리는 마음놓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맥은 내가 애써 찾지 않을 때, 밟지 않은 땅이 되어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맥이란 건 내가 의식하지 않아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란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타리안과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초찬모임에 왔는지, 내가 로타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해야 로타리에 대한 소속감과 참여율을 높

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원들끼리 수평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클럽 간 횡적 연대도 보다 활발해져 서로에게서 장점을 배워야 합니다. 회원들에게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주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타리는 인간적인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나와야 하고, 사람을 만나고 나누는 일이 즐거워서 계속 나오고 싶어 하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가 있는 회원 중심의 로타리와 로타리안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건 로고스(이성)이 아니라 파토스(감성)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조직, 사람의 감동을 만드는 로타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누군가를 만나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감추고, 잘난 모습을 보여주려 애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매력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약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고 잘난 사람끼리라면 부족할 게 없는데,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참석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감추기보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 좋은 로타리,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



자랑스런 로타리안 시리즈 ②

기업인, 사회 사업가로 나눔을 실천하는 **윤상구 국제로타리 재단이사**

윤상구 (주)동서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의 장남으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위원장,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 국제로타리 이사,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호스트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상구 대표이사는 건축자재 수입 판매업체인 (주)동서코퍼레이션 대표이사로 30여 년간 활동해오며 다양한 단체를 운영해 왔다. 이것은 그가 '나눔'이 진정한 행복임을 몸소 실천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최근에는 사단법인 국제로타리와 재단법인 국제로타리의 커뮤니티 그룹들 중 '전략계획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지난 20여 년간 회원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로타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각종 사회단체, 종교단체의 고민인 '소속'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다. 요즘 사람들은 어딘가에 속하여 얹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로타리 전략계획위원회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현재, 로타리안이 되는 길은 오직 '회원 가입'이다. 로타리안이 되는 길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전략계획위원회의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또, 로타리안이 되지 않아도 로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 경우에는 '봉사'라는 큰 틀은 동일하나 권리와 책임은 다를 것이다. 최근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로타리안이 원하는 것에 관하여 100여만 명의 의견을 받아 분석하였다. 이 설문 조사로 도출된 것이 '비전 선언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 '비전 선언문'을 실천하기 위하여 무엇을 선행할 것인지를 논하고 있다.

“나에게 로타리는 봉사의 샘이다.”



로타리안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하여 선행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는 올해 말쯤 도출되어 내년에 공유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계획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디지털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로타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로타리안의 공동 과제를 풀어가고 있다.

로타리는 다양한 부분의 지도자 120만명이 모인 역량 있는 '봉사의 플랫폼'임이 틀림 없으며, 이러한 활동과 고민은 로타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이사님께서 로타리안이 되신 계기는 무엇이었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초 로타리가 생기게 된 계기와 비슷합니다. 미국에서 학업과 사회 생활을 하다가 귀국하게 되니 특별히 소속된 단체가 없었습니다. 마침 한양로타리에 소속된 지인의 소개로 한양로타리가 만든 새한양로타리가 창립되면서 1987년 로타리안이 되었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국제로타리 재단 운영에 참여하는 재단이사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결심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윤영석 이사님이 하셨듯이 뒤를 이어 잘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로타리안을 로타리안답게 만들며, 무엇이 이들의 가슴에 자부심을 심어 줄까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로타리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봉사'입니다. 그 매력이 저를 로타리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이사님께서 로타리안으로 활동하시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사람이 궁금합니다.

지난 2004~05년도 로타리 100주년 때 3650지구의 총재를 하였습니다. 로타리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지구 총재들이 뜻을 모아 몽골 고비사막에서 황사방지를 위한 대규모 방풍림 조성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다음해 계속 사업을 정하기 위해 사업장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중 사고가 나서 불행하게도 일행 중 한 분인 고(故) 안민동 총재께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저 때문인 것 같아 로타리를 그만둘 작정이었는데, 그 분은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을 성공시켜 달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분의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10년간 몽골 방풍림 조성과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 사업 등을 제 나름 열심히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로타리, 그리고 로타리안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원하십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모임과 기부가 중요시되는 것보다 손발로 실천하는 모습이 행복한 로타리안이지 않을까요?

로타리는 봉사가 없으면 진정한 로타리가 아닙니다. 클럽에서 주도적으로 회원들이 봉사를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리드하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



자랑스런 로타리안 시리즈 ②

재능 기부로 나눔을 실천하는 윤영석 前 국제로타리 재단이사

기업인으로서 대우중공업 대표이사·회장, 대우그룹 회장 등 한국 산업을 이끌며 국제로타리 재단이사와 3650지구 총재를 역임하였다. 또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한·몽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우간다 명예영사, 한독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여왔다.



여러 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명확한 경영 철학과 체계적인 조직 운영으로 성공적인 결과만을 도출해온 윤영석 이사는 로타리에도 그 재능을 기부하여 새로운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요즈음 로타리 3650지구 트레이너로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는 윤영석 이사의 최근 근황을 들으며, 무엇보다 로타리의 봉사가 가장 좋다는 그의 웃음에서 행복이 보였다.

이사님께서 로타리안이 되신 계기는 무엇이었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1990년 이동진 회장님의 권유로 한강로타리클럽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사업으로 한창 바쁠 시기여서 로타리에 잘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직장주회를 통하여 로타리안들에게 회사를 소개하며 10여 년간 로타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로타리의 회장이 되어 P.E.T.S 교육을 받았는데 경쟁에 익숙했던 저는 교육을 받던 중, 스스로 바뀌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질감으로 로타리안을 포기하려고 했으나, 지인들의 권유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로타리의 사례,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점차 로타리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로타리안을 로타리안답게 만들며, 무엇이 이들의 가슴에 자부심을 심어 줄까요?

로타리의 핵심 키워드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즉 로타리의 봉사가 로타리를 로타리답게 만들며 로타리안의 자부심일 것입니다. 로타리안은 로타리에 대한 애정을

지난 1990년 로타리클럽에 입회해 28년간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윤영석 이사는 2009년 7월 1일, 3650지구 총재 취임식에서 '행동하는 로타리안들(Rotarians in Action)'이라는 지구 운영 기조를 발표하고, 3천여 명의 회원 증강과 75만 달러의 기부를 이끌어 내었다. 이것은 3650지구의 기록이자 국제로타리에서의 명예로운 보람이었다.

RI 본부 커뮤니티 멤버, 트러스트 재단 이사 업무로 미국을 자주 방문하면서 로타리에 더욱 심취하게 되었다. '로타리의 전도사'라 불릴 정도로 지난 10년 동안 로타리가 삶의 주요 테마였다.

“나에게 로타리는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이다.”

가져 로타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총재는 명분, 목표, 당위성을 주어야 하고, 로타리안은 스스로 봉사하고 나누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로타리안이 '봉사의 심벌'이 되어 '로타리'하면 '네트워킹'보다 앞서 '봉사'라는 공식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이사님께서 로타리안으로 활동하시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사람이 궁금합니다.

봉사 활동으로 베트남에 가서 144명의 언청이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 후, 아이를 안는 엄마의 모습이 행복과 감사로 빛났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이 잊히지 않을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찍은 사진을 받았는데, 그 순간 봉사의 보람이 몰려왔습니다.

로타리, 그리고 로타리안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원하십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봉사의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타리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 시카고 시내에 '공중화장실 만들기' 봉사를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인류애의 실천이 로타리의 발전 방향이자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로타리는 '소아마비 박멸'과 같은 비전을 찾고 있습니다. 120만 회원들은 정부나 다른 단체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젊은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즉, 세대의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로타리 활동이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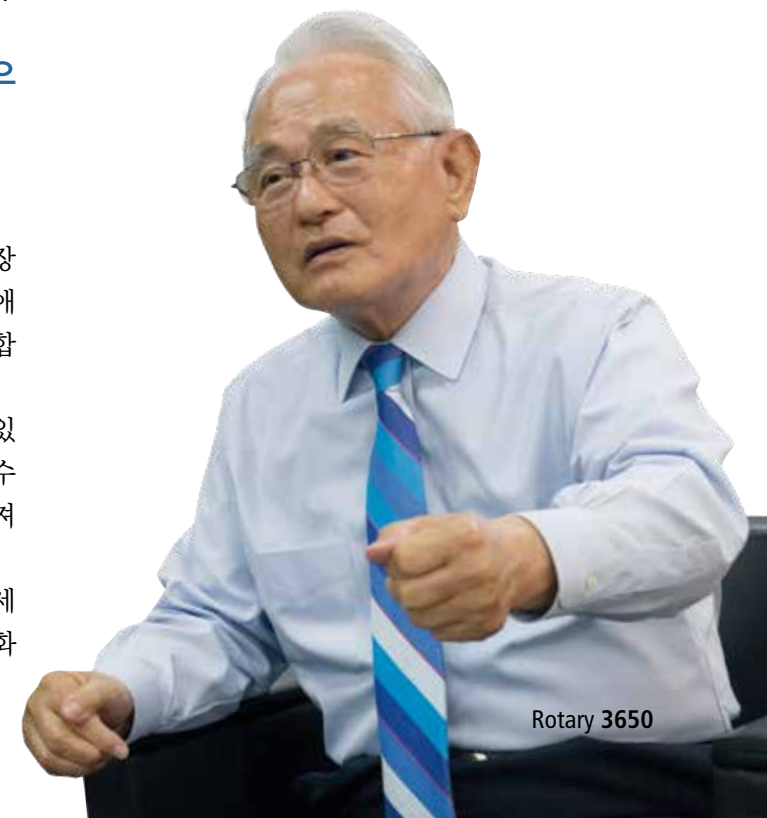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P.E.T.S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는 관심과 소통입니다. 지구 총재나 클럽 회장은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콘택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발전 방향이 성공적이었을 경우,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그 결과는 회원 증강과 기부금 상승일 것입니다.

현재, 17개 지구 중, 3650지구 회원이 줄어 기부 금액도 낮습니다. 저는 9년 전, 총재 시절 단상에 올라 3천 명의 회원 증강을 다짐한 이후, 그것을 실천하여 포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즉, 로타리안으로서 초심을 잊지 않고 그것을 실천수행하는 모습만이 로타리의 발전을 약속할 것입니다. 🌟



8월 지구 월례회의 겸 회원증강 세미나 개최, 120여명 참석

회원증강 1천명, 신생클럽 50개 창립 목표!

소셜엔터프라이즈 신생클럽 5개 창립소개, 지역별 회원증강 목표 서약식, 매월 재단기부 표창식 등 '새로운 변화로 감동과 기적을 만드는 월례회의'

로타리안 기업의 로타리 참여와 봉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소셜 엔터프라이즈' 신생클럽으로서 스타키코리아 (총재특별대표 심상돈), KCC정보통신 (총재특별대표 이상현), ERA 코리아 (총재특별대표 이영석), 지엔피링크 (총재특별대표 황순신), 체리쉬 (총재특별대표 유준식) 등 다섯개 기업, 총재특별대표에게 감사패를 증정.



지구 임원 및 클럽 회장, 총무단 8월 월례회의 겸 18-19 회원증강 세미나가 8월 24일(금) 장세호 총재와 이동건 전R 회장, 윤상구 로타리재단 이사, 운영석 로타리재단 전이사를 비롯한 총재단과 지구임원, 클럽회장, 총무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기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월례회의는 장세호 총재의 내빈 소개 및 총재인사와 이동건 전R회장의 격려사, 신입회원 환영식, 신규 고액기부자 및 7월 우수기부자 표창, 소셜 엔터프라이즈 신생클럽 창립 소개 및 표창, 회원증강세미나 등으로 진행됐다.

신입회원 환영식에는 한양, 서울중앙, 서울아미, 서울문화, 서울새노원 로타리클럽 등 신입회원 10명이 참석하여 신입회원 증서를 장세호 총재가 전달했고, 최혜영 지구송리더 지휘와 경희수 인터랙트위원장의 반주로 '웰컴 로타리안즈'를 함께 부르며 환영식을 가져 성황을 이뤘다.

또한 금년도 월례회의에서 매년 실시할 예정인 재단기부 표창 시간에는 신규 재단 고액기부자로 허수창(서울문화, Level 3), 이희봉(서울문화RC, Level 2) 회원에게 크리스탈패를 전달했고, 매년 1구좌 이상 재단기부를 약속하는 PHS 회원으로 이번 회기들어 새롭게 가입한 황순신 3지역대표와 남궁근 9지역대표에게 회원증서와 배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7월에만 7,800달러를 기부한 서울관훈RC(회장 정휘영)과 5,100달러를 기부한 서울동남RC(회장 문찬정)을 재단기부 우수클럽으로 표창했다.

장세호 총재의 주도로 이번 회기 우리 지구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로타리안 기업의 로타리 참여와 봉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소셜 엔터프라이즈' 신생클럽으로서 스타키코리아 (총재특별대표 심상돈/30명), KCC정보통신 (총재특별대표 이상현/20명), ERA 코리아 (총재특별대표 이영석/20명), 지엔피링크 (총재특별대표 황순신 / 20명), 체리쉬 (총재특별대표 유준식 / 20명) 등 다섯개 기업이 1차로 참여하기로 하여 총 이날 월례회의에서 창립 소개와 함께 창립을 주도한 5개 기업 대표이자 5명의 총재특별대표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진행된 회원증강 세미나는 회원증강 목적과 회원증강 노하우에 대해 장세호 총재가 직접 강연의 시간을 가졌고, 김종 사무총장이 지구 회원현황 분석 및 목표를 소개했다.



10개 지역대표들이 등단하여 총 696명의 금년도 지역별 회원 순증강 목표에 대한 서약식을 가졌다.



아울러 10명의 지역대표들이 등단하여 총 696명의 금년도 지역별 회원 순증강 목표에 대한 서약식을 가졌고, 우리 지구 클럽 중 금년도 최다 회원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창덕RC(25명, 회장 안상근), 한성RC(22명, 회장 김무일), 한양RC(18명, 회장 윤구홍)의 회장들이 등단하여 본 클럽의 목표와 증강계획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함께 새로게 임명한 지구 사무차장들을 소개하는 시간과 최진욱 직전 사무총장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는 선물 전달식의 시간도 있었다.

금회기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월례회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행사 시작 30분전부터 친교의 시간으로 커피를 함께 하는 리셉션을 갖고, 테이블 배치에서도 신입회원, 재단기부, 신생클럽 회원들을 우선 맨 앞줄에 배치하고 소속 지역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좌석을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변화의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9월 월례회의는 9월 21일(금) 재단 세미나를 겸하여 하얏트호텔에서 조찬행사로 개최되며, 10월 월례회의는 10월 19일(금)에는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여 석간 주회 형태로 개최할 예정이다. ☀

지구 주최 제1차 연사 초청 주회, 40여명 참석

강정임 ERA 코리아 대표 '한반도 통일시대의 부동산 전략' 주제로 강연



RI3650지구 주최 제1차 연사 초청 주회가 지난 8월 30일(목) 오후 6시 30분 삼성동 소재, 공간 스페이스 “알고(R.go)”에서 40여명의 로타리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세호 총재와 이승우 전총재, 이종원 전총재, 유장희 차차기총재를 비롯하여 20여개 클럽에서 지구 임원 및 클럽회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날 특강연사는 강정임 ERA 코리아 대표이사가 초청되어 '한반도 통일시대의 부동산 전략'을 주제로 약 1시간동안 유익한 강연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회원들은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고, 식사 후 특강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강연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주회에 초청된 강정임 대표는 이영석 7지역대표

(서울한강RC)의 영부인이며, 또한 개최 장소 역시 이영석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공유오피스 사무실을 무상 제공해주어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가졌다.

지구에서는 금회기에 소규모 클럽 활성화를 일환으로 소규모 클럽의 정상적인 봉사와 주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RI3650지구 주최 연사초청주회와 봉사주회를 가능한 번갈아 실시할 계획이다.

연사 초청주회 개최는 소규모 클럽 회원 뿐 아니라, 3650지구 내 모든 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익한 연사의 강연과 여러 클럽 회원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연사 초청주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좋은 연사를 모시고 개최하는 각 클럽의 주회에도 타 클럽 회원들의 참석을 희망하는 클럽들의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



한국산업기술대 로타랙트클럽 창립식 개최 서울회현RC 스폰서, 창립 로타랙터 21명으로 구성



서울회현로타리클럽(회장 문성우)은 지난 9월 15일 (토) 삼성동 코워킹스페이스 R.go에서 '한국산업기술대 로타랙트클럽' 창립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윤영석 前로타리재단 이사와 장세호 총재, 유장희 차차기총재를 비롯하여 서울회현 RC 문성우 회장과 김관수 직전회장, 권재진 차기 회장, 홍광희 총무, 강병원 클럽 로타리재단위원장 등 서울회현 로타리클럽 회원들과 박상진 신세대위원장, 정창화 로타랙트 지구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산업기술대 로타랙트클럽 창립 회원 21명이 함께 했다.

초아의 봉사를 다짐하며 결성한 '서울산업기술대 로타랙트클럽' 회원 공학도 21명은 서울회현 로타리클럽 이재훈 직전 총무가 금년도 초까지 서울산업기술대 총장을 역임한 것이 인연이 되어 창립을 추진하게 됐다. 이후 김관수 직전회장과 강병원 클럽 로타리재단위원장의 노력과 수차례 대학 관계자 및 로타랙터들과의 협의를 거쳐 창립에 이르게 됐다.

한국산업기술대 로타랙트클럽 김현동 회장과 회원들은 스폰서클럽인 서울회현로타리클럽 회원들의 훌륭한 봉사파트너가 되어 봉사가 필요 한 어느 곳이든 함께 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전했다.

이제 막 태어난 신생 로타랙트 클럽인 만큼 기금적 월 1회는 서울회현 로타리클럽의 주회에 참여하여 차근차근 로타리를 알아가는 것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Korea Polytechnic University)는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출연으로 대학교 설립을 인가받아 1998년에 개교한 대학으로 경기도 시흥에 위치해 있다. 중소기업 현장실무자에 대한 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종 정부기관, 연구기관, 협회, 기업 등과 협약을 맺어 활발한 산학협력 및 학술교류를 하는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국산업기술대 로타랙트클럽 회원들의 창립 소감 “3650지구 로타랙터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겠습니다!”

- ★ 회장 / 김현동 - 학교에서 로타랙트 관련한 회의만 하다가 실제 공식적인 행사인 발대식에 참여하였는데 생각보다 큰 활동이라 놀랐고, 로타리 클럽 회원 분들의 덕망 있는 모습을 보니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고 느꼈다. 한국산업기술대 로타랙트 초대 회장 자리가 무겁지만 학교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기를 마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 부회장 / 조미연 - 로타랙트 부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한다는 자부심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 이진희 - 학교를 대표해서 뜻 깊은 창립식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고 축하에서 들던 말처럼 내 인생에 가을이 왔을 때를 상상하며 열심히 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 ★ 김예원 - 로타랙터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 윤혜수 -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모든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여 한국산업기술대 로타랙트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 손지현 - 한국산업기술대에서의 로타랙트 첫시작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에서 오늘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김민진 - 처음해보는 활동이어서 기대가 되고 발대식 때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셔서 좋았고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 ★ 김민영 -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처음 참여하는 것이어서 기대가 되고 설 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해야겠다.
- ★ 유재환 - 내 생각보다 규모가 큰 것 같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 ★ 배규현 - 생각했던것보다 규모가 매우 거대해서 상당히 놀랐고 자부심이 들게 되었다
- ★ 서인혜 - 처음 가보는 공식적인 회의자리라 떨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었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는 마음에 설레는 점도 있었다. 무엇보다 딱딱하지 않는 회의자리였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 ★ 조수연 - 뜻 깊고 자랑스러운 자리였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 ★ 최기원 -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고 좋은 분들 만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 ★ 전동근 - 로타리안에 있는 로타랙트라는 좋은 봉사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좋고 훌륭한 분들과 저녁식사까지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 ★ 허지수 - 처음으로 로타랙트 회원 모두가 모인 자리라 뜻 깊었고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 ★ 홍진호 - 사실 잘 할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의원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좋은 식사자리를 함께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 ★ 이규진 -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로타랙트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눔과 배움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첫걸음인 만큼 최선을 다하는 로타리안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 박진호 - 발대식하면서 앞으로 있을 좋은 경험과 만남들이 너무 기대되고 이제 시작인만큼 모두 좋은 팀이자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정수현 - 오늘 발대식을 통해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회원들과 친목을 다지고 맛있는 저녁식사 또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 최현정 - 발대식을 통해 정식으로 로타랙트의 일원이되니 그만큼 책임감도 생기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거 같습니다!! 로타랙트에서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 ★ 신지윤 - 이번 로타랙트 발대식을 통해 로타리 클럽과 로타랙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첫 시작을 알리는 자리인만큼 새로운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8-19년도 3650지구 장기 청소년 교환학생 선발



Rotary
District 3650



RI5100지구(미국 오레곤주) 이사벨 양 1년간
예일여고에서 수학, 스폰서클럽 서울남산RC

〈지구 호스트 청소년 교환학생〉
Isabel Villegas-Glang (2002년생)

- 스폰서 지구
 - RI5100지구(미국 오레곤주)
- 호스트 클럽
 - RI3650지구 서울남산RC
- 호스트 학교
 - 예일여자고등학교



〈지구 스폰서 청소년 교환학생〉
차지영 (예일여고 2학년) 2001년생

- 스폰서 지구 및 클럽
 - RI 3650지구, 서울남산RC
- 호스트
 - RI 5100지구(미국 오레곤주)
- 호스트 클럽
 - RI 5100지구 Keizer RC



2018-19년도 장기 청소년교환 학생으로 RI5100지구(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이사벨(Isabel Villegas-Glang) 양이 8월 24일 입국하여 약 1년간 예일여자고등학교에서 한국어, 한국문화 및 역사 등을 공부하게 되며 서울남산로타리클럽(회장 윤승진)이 스폰서클럽으로 맡게 됐다.

또한 우리 지구에서는 예일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차지영 양이 청소년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지난 8월 24일 미국 RI 5100지구(미국 포틀랜드)로 출국했다. 차지영 학생은 우리 지구 서울 자동차고 인터랙트클럽 지도교사인 차상우 선생님의 자녀로, 로타리 봉사파트너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보람을 함께 나누게 됐다. 우리 지구는 차세대 지도자인 청소년들의 국제우호증진과 외국문화 체험을 위해 지난 1999-2000년도부터 매년 미국 미네소타주와 네바다주 등지 RI5950/5960지구와 함께 상호 1년간의 장기 청소년교환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한국로타리 청소년연합의 청소년교환 프로그램 다지구통합통제센터(Multi-districts YEP in South Korea)와 도움과 이호규 청소년교환위원장이 소속클럽인 서울남산RC, 그리고 예일여자고등학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청소년교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RI 이사회 결의사항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6월 21일 2017-18년도 RI 이사회가 최종 회합을, 6월 29일에는 2018-19년도 RI 이사회가 첫 회합을 개최했습니다. 국제로타리 이사회에서는 6개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39개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사회의 주요 결정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RI 이사회 하이라이트

- 새로운 존 구조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지역 팀들에 따라 지구 구조를 수정했다.
- 로타리 펠로우십 정의 추가 개정: 로타리 펠로우십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친교를 발전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공통 관심사, 직업 또는 여가 활동을 하며 전 세계적으로 단합하는 로타리안, 그 가족들, 로타랙터들, 프로그램 참여자들 및 동창들 그룹을 말한다.
- 이사회는 다음 4가지 주요 우선사항들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전략 계획을 채택했다.
 - 로타리의 영향력 향상: 소아마비 박멸 및 유산 활용/ 프로그램 및 기부금 집중/ 영향력 성취와 평가 능력 향상
 - 참여 향상: 회원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도록 클럽 지원/ 가치 공유를 위해 참여자 중심적인 접근법 개발/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연결을 위한 새로운 기회 제공/ 리더십 개발 및 기술 트레이닝 제공
 - 로타리 영역 확장: 회원 수 증가 및 참여 확대와 다양화/ 로타리에 입회하는 새로운 채널 개발/ 로타리 개방 확대 및 관심 끌기/ 영향 및 브랜드에 대한 인식 구축
 - 적응 능력 향상: 연구, 혁신, 위험을 감수하는 의지의 문화 구축/ 관리방식, 구조, 절차 간소화/ 의사 결정에 있어서 더 다양한 관점들을 촉진하는 관리방식 검토
- 2020년 국제대회에서 열릴 2021-23년도 RI 이사 지명을 위한 2018-19년도 지명위원회를 Zone 5, 7, 8, 11, 16B, 20B, 23B, 27, 31에서 선정하는 것에 동의했다.
- 총 수익 1억 1,382만 6천 달러, 운영 경비 8,648만 3천 달러, 일반 잉여 자금 사용분 105만 6천 달러, 국제대회 상비금 사용분 111만 5천 달러를 반영한 2018-19년도 RI 운영 예산을 승인했다.

2018년 7월 RI 이사회 하이라이트

- 국제로타리 및 로타리재단을 위한 2019-20년도 연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채택했다.
 - 단합시키기: 클럽 및 지구에서 리더십을 활성화하는 절차 강화하기/ 새로운 회원들을 영입하고 기존회원들을 유지해 클럽 회원 증가시키기/ 새로운 클럽 창립시키기/ 여성회원, 40대 이하 회원 및 로타랙터 회원 수 증가시키기/ 인터랙트, 로타랙트, 로타리클럽 회원들과 기타 로타리 참여자들 간의 참여 및 협력 향상시키기
 - 행동하기: 소아마비 박멸에서 로타리와 로타리인들의 역할 홍보하기/ 지구보조금, 글로벌보조금, 폴리오플러스 및 로타리 평화센터에 DDF를 활용해 지역 및 국제 프로젝트 증가시키기/ 2025년까지 인다우먼트 기금을 20억 2,500만 달러로 증가시키기/ 로타리에 대한 인식 구축 및 People of Action 캠페인 홍보하기
 - 내부 운영: 현 자원봉사 리더십의 수준과 효과 분석하기/ 프로그램 활동에 집중하고 그 범위를 잠재적으로 좁히기
- 연수회, 회장대리, 지역 지도자들의 유효성을 포함한 지역 지도자들 및 구조, 지역화 모델, 이사들과 지구들 사이의 봉사 리더십 단계, 이상적인 지구의 수, 크기, 리더십 구조 및 지구 총재의 의무 등을 포함한 로타리의 관리 방법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했다. 구성 인원은 6인이다.
- RI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젊은이들의 관점을 포함시키기 위해 4년간 젊은 전총재들을 RI 이사회의 재원으로 포함하는 시범 운영을 승인했다.



한양로타리클럽

창립63주년 기념주회 및 제13회 '초아의 119 봉사상' 시상식 개최



한양로타리클럽(회장 윤구홍)은 지난 9월 3일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창립63주년 기념주회와 제13회 '초아의 119 봉사상 & 초아의 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로타리3650지구 장세호 총재를 비롯해 해외자매클럽 RI2650지구(일본) 교토 로타리클럽 山下 尚治 국제 친선 위원장과 富田 謙一郎 회원증강 부위원장, 스폰서 클럽 회장 및 초아의 봉사상 수상자 등 회원을 비롯한 내외 귀빈 4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김석철 총무가 진행을 맡은 이날 행사는 윤구홍 회장의 기념사와 장세호 총재 축사, 교토로타리클럽 藤井 久嗣의 축사, 축배 제의, 63년사 영상상영, '제13회 초아의 119봉사상 & 초아의 봉사상' 시상식과 특별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우리 생활주변에서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119 대원들의 봉사정신에 감사를 표하는 한양로타리클럽 '초아의 119 봉사상' 시상식도 어느덧 13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제13회 수상자 종로소방서 박병준 지방소방위, 동작소방서 이승배 지방소방위, 강서 소방서현장대응단 김종원 지방소방교, 관악구청 이철용 환경미화원에게 상패와 각각 금3돈, 화장품을 부상으로 시상했다.

올해는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인도주의 봉사를 펼치는 이철용 환경미화원에게 <초아의 봉사상>을 함께 전달했다.

이어 서울동방로타리클럽 회원인 소리청 '열리고' 대표인 최재길 명창님이 특별축하공연을 가졌습니다. 우리 국악 특유의 멋과 흥에 취해 함께 어우러졌으며,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 박타는 대목을 멋지고 신나게 공연을 해주셔서 창립 기념 주회가 더욱 빛났다. 🌻

한양로타리클럽 '초아의 119 봉사상' 수상소감

생명의 소중함,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무한의 가치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대에 근무하는 박병준입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초아의 119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고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양로타리클럽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6년 10월에 소방에 입문하여 21년째 소방현장업무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 현장을 경험하며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구조한 생명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아픔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은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8년 8월 1일 오후 2시에 종로 2가에 위치한 YMCA 건물 옥상에서 투신우려가 있다는 출동지령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투신우려가 있는 지점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8월 1일 당일은 서울지역에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운 39도의 폭염이 맹렬히 들끓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 요구조자는 옥상위에 설치되어 있는 2평정도 되는 환풍구위에서 소주를 마시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내용은 자신들이 경기도 고양시 국제청소년 유스센터 공사현장에서 3개월분의 임금 4억원을 받지 못해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일 날씨가 너무 더워 소주를 마시며 장시간 옥상의 좁은 공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요구조자가 열사병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소계서 요구조자와 대화를 유도하며 조금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장시간의 설득 작업과 공사관계자의 임금 지불 약속에도 불구하고 요구조자는 당장 임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3시간여의 설득에도 내려오지 않던 요구조자가 그 무더운 날씨에 소주와 막걸리를 마신 상태에서 본인도 너무 힘들었던지 저를 보며 무언가 사인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보니 본인이 너무 힘든데 체면상 그냥 제 발로 내려가지는 못하겠고 대신 구조대원들이 끌어 내려줬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휘팀장과 상의 하에 대원들과 함께 강제로 끌어내리는 모양새를 취해 상황을 안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지만 그 더운 날씨에 옥상에 올라가 시위를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내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초아의 119봉사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 번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욱더 봉사하는 마음 자세로 공직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



글.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대 박병준



서울문화로타리클럽

광양고 인터랙트 2명과 관명장학생 2명에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

서울문화로타리클럽(회장 박찬희)은 지난 9월 3일(월) 이종원 전총재, 김경일 장학금 기부자, 경희수 인터랙트 위원장이 광양고 강경윤 교장을 방문하여 환담 후, 인터랙트 회장을 맡고 있는 이인선 학생과 총무를 맡고 있는 오현민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서울문화로타리클럽의 김경일 회장은 매년 소정의 장학금을 출연하여 본인이 단장직을 맡았던 광양고 인터랙트의 임원 2명에게 클럽 명의로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는 선행을 베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6일 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된 주회에서는 허수창 전회장의 2018-19년도 2학기 관명장학생인 박은비(숙명여대 무용과 1학년)학생과 오영택(중앙대 로타랙트 회장/기계공학부 3학년)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



서울리더스로타리클럽 400회 기념주회 개최 '어울림이끌림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리클럽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울림이끌림사회적협동조합은 다문화가정, 미안마카렌족 재정착난민이 한국사회에 적응을 잘 하여서 건강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단체입니다.

이날 김종철 회원의 부인 유진희 여사께서 해금 연주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들려 주시면서 행사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서울리더스로타리클럽은 활발한 로타리클럽 활동을 통해 회원간 친목도모 및 봉사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서울리더스로타리클럽(회장 강석희)은 8월 23일(목) 어울림이끌림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병철)과 업무협약 체결 및 후원금 전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한일관'에서 회원 및 배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리더스로타리클럽 400회 주회를 자축하면서, 어울림이끌림사회적협동조합을 서울리더스로타

서울호서로타리클럽

'호서노인전문요양원, 호서복지재단 효자의집에서 사랑나눔봉사'



서울호서로타리클럽(회장 강일구)은 한가위를 맞이하여 지난 9월 12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호서노인전문요양원, 호서복지재단 효자의 집에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울호서로타리클럽은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청소, 기부물품 나르기과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호서노인전문요양원과 효자의 집에 각각 쌀 20포대, 3단 전동침대 1대씩을 기부하여 총 2대의 3단 전동침대와 쌀 40포대를 기부했다. 강일구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폭넓은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로타리가 추구하는 초아의 봉사이념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호서로타리클럽은 지난 5월에 창립 신생클럽으로서 현재 3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창립 초대회장을 맡은 호서대 강일구 전총장은 서울무악RC 강철구 전회장의 친형님으로서 '패밀리 투게더'의 정신을 갖는 의미를 갖고 있다. 🍁

한성로타리클럽

‘서울역 노숙형제 밥 사랑 나눔 축제’에서 급식봉사



한성로타리클럽(회장 김무일)은 지난 8월 30일 서울역 해돋이 마을에서 개최된 ‘서울역 노숙형제 밥 사랑 나눔 축제’에 오전 11시부터 회원 22명과 김지민 한성장학생(동국대 법학과)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 한성로타리클럽은 서울역 노숙인을 섬기는 해돋이 마을(이사장 장현일, 생명나무교회목사)과 신성교회(김원일 목사)에서 급식봉사를 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무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눔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로타리 정신에 따라 노숙 형제분들과 늘 함께 사랑을 나누며 자활의 희망을 준비하는 새로운 인생을 함께 준비하자”고 격려했고, 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오후에는 NGO (사)월드뷰티핸즈에서 하는 뷰티봉사를 함께 도왔다. ☀

한양-연세로타리 위성클럽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양로타리클럽과 합동봉사 실시

한양 연세 로타리 위성클럽은 지난 9월 13일 목요일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양로타리클럽회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한양로타리클럽과 한양연세로타리 위성클럽 회원들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최한 ‘우리동네축제’의 행사 보조 및 마무리 정리를 돕는 봉사를 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최경순 2지역대표의 지원으로 축제에 오신 지역주민들, 자원봉사자들과 치킨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양연세로타리 위성클럽은 앞으로도 중림종합사회복지관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



3650지구 댄스동호회 창립



글. 지구 동호회위원장. 단은 이정선
(서울소통 로타리클럽 전회장)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3650 지구에 로타리인들의 활기찬 에너지 창출과 건강을 위해 댄스동호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로타리 회원들간의 화합과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우정이 쌓아진다면 그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 댄스동호회를 통하여 행복바이러스가 모든 회원들에게 전달 된다면, 3650지구는 행복의 지구가 될 것입니다.

좋은 음악 속에 움직임의 표현이란 춤. 흥. 낭만이 융합된 아름다움의 예술 그 자체일 것입니다. 거기에 즐거움과 함께 동반하니 생각 만해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는 설레임으로 우리를 자극 할 것입니다.

19세기는 생산하는 시대였고, 20세기는 소비하는 시대였습니다.

21세기는 가치를 창출하며 즐기는 놀이하는 시대입니다.

‘놀이’란 나에게 주어진 기회, 일, 시간을 잘 활용하여 건강한 멋진 나를 만들어, 그동안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3650지구 로타리인들이 많이 참여 하셔서 인생의 묘미를 3650지구 속에 댄스동호회와 함께 느껴보시고 행복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3650지구 댄스동호회 박찬희 회장(서울문화RC)의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이 여러분들을 즐겁게맞이 할 것입니다. 또한 조용히 헌신적으로 수고 하시는 홍성이 부회장(서울뉴광진RC)과 함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드리는 인생의 멋진 선물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구 댄스동호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 방배동 한국발레하우스 2층

- 지하철 2호선 3번 출구로 나와서 180미터

가입 문의 : 박찬희 회장 010-6308-2619

홍성이 부회장 010-3233-0066

참가비 : 3개월 20만원

한양로타리클럽 총재공식방문

신입회원 4명 입회식 가져, 금년도 회원 18명 증강
재단기부 2만달러 기부 목표, 8월 20일(월) 더 플라자 호텔



한양로타리클럽(회장 윤구홍) 총재 공식방문주회가 지난 8월 20일 더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에서 만정 윤구홍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현성 장세호 총재는 최경순 2지역대표와 함께 방문하여 2018-2019년도 한양로타리클럽 현 진행상황과 1년 동안의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클럽 운영 어려움에 따른 해결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윤구홍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꽃잎이 모여 꽃이 되고,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되고, 기쁨이 모여 행복이 된다고 합니다. 한양로타리클럽 전 회원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하나 된 모습으로 초야의 봉사를 실천하는 로타리안이 되었으면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성 장세호총재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양클럽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며, 총재공식방문의 첫 테이프를 한양클럽에서 끊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며 “로타리의 본질적 가치는 <로타리 강령>과 <네가지 표준>이며 ‘봉사에 이상을 우리의 기업활동에,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의 직업활동에 적용을 해서 우리 기업이 사회에 공

헌하는 기업이 되도록 만들고, 우리의 전문가들은 자기의 직업을 사회에 공헌하는 직업으로 만들자’입니다. 한양클럽의 한 분 한 분이 보이지 않는 진짜 로타리안이 되어 클럽이 더 발전하였으면 좋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이고, 변화의 선구자가 되어 ‘내가 변해야 우리 로타리가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는 것을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석한 회원들에게 <로타리 사회적 전문가 선언서>를 설명하고, 로타리의 기본 가치가 담겨있는 특별제작 타종을 클럽에 선물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총재공식방문 환영의 의미로 많은 회원들이 재단기부에 10구좌 이상의 기부 및 약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세호 총재의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로, 신입회원 환영식을 갖고, 김기영(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교수)와 김현로(삼풍플라워 대표), 남상오(공인중개사), 이해순(KB증권 차장)회원이 새롭게 입회선서를 하고 로타리 뺑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날 총재공식방문주회는, 무엇보다 로타리클럽 본연의 목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서울무악로타리클럽 총재공식방문

김종문 회장 이번 회기 중 홀수 달마다 PHF 기부 약정 100% EREY 클럽 목표 8월 21일(화) 오크우드 호텔



서울무악로타리클럽(회장 김종문) 총재공식방문 주회가 지난 8월 21일(화) 12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5층 프리미엄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현성 장세호 총재는 이영석 7지역대표와 함께 방문하여 주회 전 클럽협의회를 갖고 클럽 현황과 2018-19년도 클럽 활동목표에 논의하였다.

장세호 총재는 연설에서 “우리 3650지구의 꽃 중의 꽃이며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은 명품 클럽인 무악로타리클럽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며 “금년 비전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창조적 변화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변해야 로타리(Rotary)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한다는 마음으로 실천합시다!”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참석한 회원들에게 “로타리 사회적 전문가 선언서”를 설명하고, 로타리의 기본 가치가 담겨있는 특별제작 타종을 클럽에 선물하였다.

클럽에서는 장세호 총재의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로 윤수아 신입회원의 입회식을 가졌으며 이번 회기 홀수달마다 PHF 기부를 약정한 김종문 회장에게 2Stone 뺑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무악로타랙트 회장과 장학생이 참석하여 관명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



서울관훈로타리클럽 총재공식방문

PHF 10구좌 약정, 100% EREY 클럽 목표
9월 4일(화) 그랜드앰버서더 호텔



서울관훈로타리클럽(회장 정휘영)은 9월 4일(화) 아침 7시 30분 그랜드 앰버서더호텔 오키드룸에서 총재 공식 방문 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 3650지구 장세호 총재님, 최경순 지역대표님께서 클럽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두 분과 클럽 이사님 5분을 모시고 주회 전 클럽협의회가 진행되었으며, 클럽의 모든 현황과 실적, 다양한 방면의 봉사활동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후 시작된 주회에 참석하신 32명의 회원님께서 장세호 총재님과 최경순 지역대표님 열렬히 환영해 주셨고, 조찬을 드시며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이어진 연설에서 총재님께서는 지구 사업과 기부 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셨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단체사진 촬영을 끝으로 공식 방문 주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



서울중앙로타리클럽 총재공식방문

매달 탑골공원서 점심배식 봉사로 클럽 활성화 노력
9월 4일(화) 밀레니엄힐튼호텔



서울중앙로타리클럽(회장 조상원)은 지난 9월 4일(화) 밀레니엄 힐튼 호텔 3층 제이드룸에서 현성 장세호 총재님의 본 클럽 방문 주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총재공식방문 주회에 장세호 총재님, 김종 사무총장님, 그리고 회원 3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서울중앙RC 신입회원인 최혜영 지구 송리더의 지휘로 다 함께 장세호 총재 작사, 작곡인 '우리는 로타리안'을 함께 불렀으며 조상원 회장의 환영사 후 서울중앙RC의 창립 회원인 김희철 제5대 회장님의 건배제의가 있었습니다. 장세호 총재님의 열정적인 연설 후 금년도 총재 기념선물인 '로타리 종'을 증정받고 클럽에서 마련한 작은 선물도 총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중앙로타리클럽은 매월 두번째 월요일, 탑골공원 근처 '원각사'에서 점심 배식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착용하는 클럽에서 제작한 모자와 마스크, 그리고 앞치마도 함께 총재님께 선물하였습니다. 로타리에 대한 이해와 함께 웃음이 넘쳐나는 시간으로, 장세호 총재님의 방문을 계기로 클럽이 더욱 활성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

서울로타리클럽 총재공식방문

장세호 총재 배출 클럽으로서 지구 성금 1천만원 쾌척!
100% EREY클럽 5년 연속 추진, 재단기부 회기내 10구좌 이상 기대,
9월 5일(수) 하얏트호텔



서울로타리클럽(회장 반문열)의 총재공식방문이 지난 9월 5일(수)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개최됐다. 장세호 현 총재를 배출한 클럽이자, 한국로타리 최초의 클럽으로서, 장세호 총재는 서울로타리클럽 출신 열 두번째 총재로서 클럽을 방문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장세호 총재의 방문과 2018~19년도 회장단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로 공식방문 행사에 이어 작은 음악회를 함께 가졌다. 또한 서울로타리클럽은 장세호 총재의 원활한 총재직 수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3650지구에 1천만 원을 기부하였다. 서울로타리클럽은 금회기에도 5년 연속 EREY 100% 클럽을 추진할 계획이며, 9월 현재 4명이 연차기부금(PHF)을 기부하고 앞으로도 4~5명 추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서울코암로타리클럽 총재공식방문

100% EREY클럽 추진, 젊은 리더클럽으로서 역할 기대
9월 5일(수) ALOFT강남 서울호텔



서울코암로타리클럽(회장 이영준)은 2018년 9월 5일(수) ALOFT강남 서울호텔 2층에서 총재공식방문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주회 전에는 장세호 총재님과 한태숙 1지역 대표님과 코암 로타리클럽 이영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하여 클럽 현황 보고에 이어 위원회별 사업에 대해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클럽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장세호 총재께서는 서울코암 로타리클럽이 3560지구 내에서 모범클럽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했고, 이번 회기에 강조하는 지구운영방향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서울코암 로타리클럽 회원들은 한마음으로 총재님의 열정에 박수와 함께 지속적인 지원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장세호 총재는 방문 기념선물로 준비해주신 로타리 종을 설명해 주셨고,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단체사진 촬영으로 공식방문 주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2018-19 인터랙트 지구대회 10월 27일(토) 마포고서 개최 인터랙트 위원회 회의 개최



2018-19년도 인터랙트 지구대회 개최 준비 회의를 겸한 인터랙트 위원회 모임이 지난 9월 10일 장세호 총재와 김종 사무총장, 박상진 신세대위원장, 경희수 인터랙트 위원장 등 지구임원들과 진형필 인터랙트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등 10명의 인터랙트 지도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구 사무국에서 개최됐다.

이 날 모임은 오는 10월 27일(토) 마포고 인터랙트클럽(후원 한성RC)의 주관으로 마포고등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2018-19년도 인터랙트 지구대회의 구체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 논의했고, 2018 김장나눔 봉사 참여, 청소년교환 프로그램 참여 등 금회기 신세대 위원회 사업의 새로운 계획과 비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

이대부고 인터랙트클럽 박진홍 지도교사의 '아름다운' 정년퇴임식 GSE단원으로 로타리와 인연, 2000년 이대부고 인터랙트 창립 후 20여년간 청소년사업 발전에 숭선수범하고 지난 8월말 28년 교직 생활 마무리

우리 지구 이대부고 인터랙트클럽(후원 서울정동RC)의 지도교사로 20여년동안 활동해온 박진홍 선생님이 지난 8월 29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정년퇴임식을 맞았다.

박진홍 선생님은 1990년부터 교편을 잡고 이대부고에서 28년간 교직생활을 해왔으며, 지난 1997-98년도 로타리재단 GSE(연구단교환) 멤버로 미국 텍사스주 RI5810지구에 다녀온 것을 계기로 로타리와 인연을 맺은 후, 2000년 11월 이대부고 인터랙트클럽을 서울정동로타리클럽의 스폰서로 창립하고 지도교사를 역임하면서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숭선수범하는 활동으로 로타리안과 모든 인터랙트 회원들의 귀감이 됐다.

지난 2003년에는 우리 지구의 인터랙트 지도교사 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아 더욱 조직적인 인터랙트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공헌했다.

우리 지구에서는 박진홍 선생님의 정년퇴임식을 맞아, 총재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스폰서클럽인 서울정동로타리클럽에서는 퇴임식을 직접 찾아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박진홍 선생님이 정년퇴임 이후에 로타리와 좋은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



숙명, 숭실남산, 덕성, 중앙대, 무악, 서울남산 등 6개 로타랙트클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최 어린이 감사편지쓰기 공모 심사에 봉사 참여

중앙대 로타랙트클럽(후원 서울문화RC)을 비롯한 숭실남산, 덕성여대, 숙명여대, 무악, 서울남산 로타랙트클럽 등 6개 로타랙트클럽 회원들이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걸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최한 '어린이 감사편지쓰기 심사'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되는 심사예 로타랙트 회원들이 나눠서 참여하였으며, 어린이들의 감사편지를 심사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도리어 큰 배움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친구, 부모님, 친척분들께 쓴 편지를 심사하는 봉사였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편지가 많았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직접적인 표현은 서투르다고 편지로나마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우리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심사하면서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돌아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필력이 좋아 눈물을 흘리게 하는 편지도 많았고, 편지를 쓰는 사람, 받게 될 사람뿐만 아니라 봉사자들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봉사였습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파스해져 오하려 저희가 더 많이 배운 봉사였습니다.

방학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음씨 따뜻해지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참가한 모든 로타랙터들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

글. 중앙대 로타랙트 회장 오영택



이화여대, 태릉(동덕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서울남산 등 5개 로타랙트클럽, 여대 클럽 MT 개최

이화여대, 태릉(동덕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서울남산 등 5개 로타랙트클럽 회원들이 8월 8일과 9일 1박 2일로 '여대 MT'를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작년에 이어서 신촌에 위치한 하루 라는 파티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조를 이루어 엽기떡볶이와 치킨, 그리고 피자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고, 저와 덕성 회장인 모빈이가 준비한 게임으로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여자들끼리만 모인 만큼 더욱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2017년도 여대 회장님들께서 처음 기획한 여대 엠티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깊은 밤을 보냈다는데 모두가 동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여대 로타랙터들끼리의 우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여대엠티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도 생겼습니다. 🌻

글. 숙명여대 로타랙트 회장 박민영





즐거운 봉사, 함께하는 로타랙트

제14회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전국하계대회, 충남 홍성서 개최
3650지구 로타랙터 47명 참가, 스텝으로 3일간 봉사



2018년 제14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가 8월 16일~18일 홍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충남 홍성군 일대 12개 경기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국제 경기대회로 지속적인 스포츠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수시로 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시킴으로써 신체적 적응력을 향상하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2,000여명의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47명의 3650지구 로타랙터들이 참가하여, 경기, 행사 운영·진행을 보조했습니다. 경기는 육상·축구·농구·수영·태권도(시범) 등 12개 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태권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로서 공식 법률로 지정된 이후 스페셜 올림픽 종목에 첫 경기종목으로 채택되어 발달장애인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문화 행사를 통해 여러 문화를 체험해 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저를 비롯한 모든 로타랙터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준 봉사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축구종목에서 자원봉사를 맡게 되었는데, 축구경기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

를 하게 되어 축구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날에는 골대 그물을 제작하면서, 단순히 씌우면 되는 것인 줄 알았던 골대그물이 골이 들어갔는지를 판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대의 모든 부분을 반드시 감싸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진행된 조별 리그경기과 선수별 개인 훈련 겸 테스트에서는, 각 구역별로 볼보이와 경기결과를 기록하는 기록심을 진행하였는데, 개인적으로 두 역할 모두 각각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 덕성여대
로타랙트클럽 회장 황모빈



기록심을 하면서는 같이 결과를 봐주시던 주심분이 축구 규칙과 기록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축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고, 볼보이 역할 때에는 가끔 볼 주우러 가는 것이 힘들 때도 있긴 했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선수들이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기록심을 할 때보다 더 보람을 가지고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볼보이를 하던 도중 경기가 이미 끝나신 다른 팀의 골키퍼 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제가 볼보이를 맡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같이 공을 주워주시고 대신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선수들이 매우 친절하시다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험한 것은 바로 앞서 잠깐 나온 선수들과 관련된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지적장애 선수들과는 처음 만나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봉사 중에 그분들에게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전에 몇 번 했었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시작하고 직접 선수들을 대면하자마자 그 고민은 바로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매우 봉사자들을 존중해주셨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선수들 덕분에, 그 분들이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맺는 올림픽 자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좀 더 진심으로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격적인 경기 시작 전 쉬는 타임에 한 선수팀과 저를 포함한 봉사자 몇 명이 섞여 재미로 축구경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같이 경기를 하면서 실제 팀처럼 너무 잘 해주셨고, 봉사자분들이 다치지 않으면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을 잘 보내주셔서 미흡한 실력인데도 자신감 있게 공을 차며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한번 그런 좋은 분들을 뵈고 나니 다른 선수들에게도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어서, 맨 마지막 메달 수여식 때는 시상상을 맡게 된 팀과 같이 대기하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여러 이야기를 친밀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며 또 한 가지 느꼈던 점은 선수들 뿐 아니라 선수팀을 담당하시는 코치분들도 너무 다 좋으신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기를 진행하고 경기훈련을 할 때 볼보이를 하며 보게된 모든 팀들의 코치님들 중 아무도 선수에게 막 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모두 선수 개개인의 사정을 알고 그에 맞게 배려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보여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아보였고, 경기를 진행하는 중에도 항상 큰 소리로 잘한 선수는 빼놓지 않고 칭찬해주시고 실수한 선수에게는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고 일일이 말해주는 다정한 코치들의 모습은 정말 봉사자로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코치님들이 계시기에 선수들이 더 열심히 자신감을 잃지 않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스페셜 올림픽은 2박 3일 동안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준 행사였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로타랙트로서 참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로타랙트로서 긍지를 안겨준 “나라사랑, 평화 국토대장정” 강원도 고성~임진각 평화누리공원까지 4박 5일간

글. 송실남산로타랙트클럽 이진호



8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 동안 3650지구 로타랙트 회원으로서 (사)한국로타리 청소년 연합이 주최한 ‘나라사랑, 평화 국토대장정’에 참여하여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강화도 평화 전망대를 지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까지 가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여름방학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고자 지원했던 국토대장정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평화통일 국토대장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전국의 각 지구 로타리안들과 로타랙트, 인터랙트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강원도부터 파주까지 DMZ존을 중심으로 다녀왔습니다. 여름의 무더운 날씨 탓에 모두가 지치기도 하였지만 서로 도와가며 힘든 것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날, 속초에 있는 세계 잼버리 수련원에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로타리에 대한 퀴즈를

내는 로타리 골든벨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로타랙트 활동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틀째부터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되었습니다. DMZ 펀치볼둘레길이라는 16.2km의 꽤나 가파른 산을 올라갔으며 땅굴과 을지전망대를 관람했습니다.

힘든 산행에 의해 모두가 지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물을 나눠주고 뒤편 사람 옆에서 이끌어주며 동료애,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무사히 트레킹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에는 도미노 만들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열정적으로 임하였고 먼저 끝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4박 5일 동안 여러 프로그램과 트레킹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기에 알찬 방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국토대장정은 앞으로 3650지구 로타랙트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더욱 활발히 활동하기로 마음을 잡아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3650지구 로타랙트 연합 145명, 한국생명의전화 주최 '2018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 자원봉사 서포터즈로 참여



3650지구 로타랙트 연합 145명의 회원들은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앞두고 한국생명의전화와 EBS가 9월 7일(금) 오후 7시 여의도 한강공원 계절광장에서 개최한 '2018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에 자원봉사 서포터즈로 참여했습니다.

규모가 큰 행사이니만큼 여러 부스들과 이벤트가 준비되어있었고 많은 봉사자와 일반 시민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3650지구 로타랙트 회원들은 운영본부, 행사보조, 부스, 응원단 등 여러 부분에 배정 받아 봉사를 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 꽤 긴 시간의 봉사였는데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 다들 웃음을 잃지 않으며 알차게 하고 왔습니다.

항상 로타랙트로서 봉사를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지는 경험을 해왔었는데 '생명사랑 밤길걷기' 봉사는 다른 봉사 에 비해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 봉사는 봉사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봉사자로 행사장에 있으면서 평상시에 잊고 살았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도 행사 시작 전에 스티커 피켓을 만들며 다시 한 번 왜 '생명사랑 밤길걷기'에 왔는지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는데 참가자들을 보면서 나는 저 나이 때 이런 행사에 참여할 생각을 했었는지, 과연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고 참가자 한 분 한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참가자분들이 본격적으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시는 모습과 사전 부스에서 참여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따뜻한 사람들 곁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년에는 참가자로 직접 뛰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좋은 의미의 봉사였고 모두가 따뜻했던 봉사였기 때문에 봉사자들은 물론 참가자들도 진심으로 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



글. 이화여대
로타랙트클럽 회장 이푸른



Rotary Foundation GG#1866302 – Emergency Hospital Equipment for JDWNRH(Government hospital in Bhutan)

로타리재단 글로벌 보조금사업(GG#1866302)으로, 미화 56,000달러 규모로 병원 응급실 장비 18점 부탄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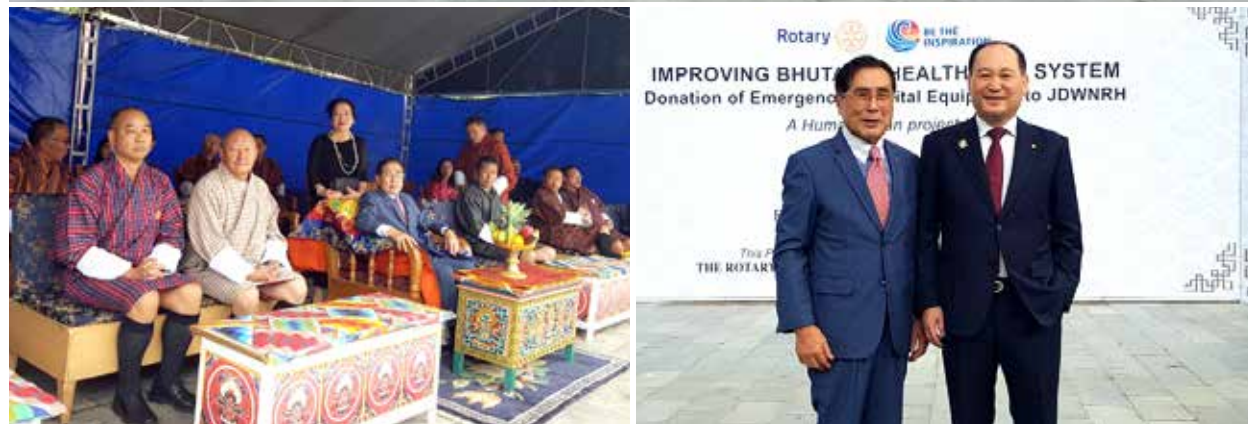
- 2016년 신장 투석기 6대 제공에 이어 두 번째
- 3650지구, 서울RC, 서울문화RC, 한성RC, 부탄 팀푸RC 참여

서울로타리클럽과 우리의 자매지구인 3292지구(네팔/부탄)에 속한 부탄의 팀푸로타리클럽은 2015년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 상징적인 사업으로 신장투석기 6대를 그 다음해에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두 번째로 부탄의 중앙왕립병원이 절실히 필요한 응급 장비를 제공하게 되었다.

인구80만의 작은 나라이지만 교육과 의료시혜가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따라서 고가의 의료 장비의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그들의 현실이라고 한다.



글. 서울RC 前총재 장성현



2018년 9월 11일 오후 2시 부탄의 수도 팀푸 중심부 시계탑 광장에서 거행된 의료장비 전달식에는 부탄 보건부 국장, 왕립중앙병원장을 위시하여 여러 팀푸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참여 하였고, 우리 측에서는 이희봉 지구 한네 팔 친선위원장(서울문화RC)과 필자가 참여 하였다.

현재 부탄은 총리와 전 각료를 뽑는 선거가 진행 중이다. (9월15일 선거일) 장관이 결석이라 부탄정부를 대표한 보건부 국장은 그의 연설에서 신장투석기에 이어 두 번째로 제공되는 응급실 장비가 부탄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한국 로타리안의 성의에 크게 감사한다고 하였다.

전달식에 이어 팀푸클럽이 주선한 환영만찬에는 20여명의 클럽 회원들이 참여 하였고 매우 흥겨운 부탄의 전통 공연이 있기도 하였다.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로타리의 활동에 참여함에 큰 보람을 느끼는 또 하나의 기회였다. 🍷



소아마비 박멸 - End Polio Now: COUNTDOWN TO HISTORY

소아마비 퇴치 글로벌 이니셔티브: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1988년에 결성된 민간/공공 파트너십 (국제로타리, 세계보건기구,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 유니세프,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전세계 주요 정부가 참여) 로타리의 역할은 소아마비 퇴치 주창 활동, 모금, 자원봉사자 동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인식제고 등이다.

엔드 폴리오 나우: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로타리가 소아마비 퇴치에 투입하는 매 1달러마다 2달러 씩(5,000만 달러까지)을 2020년도까지 상응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22억 :소아마비로부터 해방되는 날까지 로타리의 총기부 예상액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상응액 \$9억 8,500만 포함)

20억 회 :총 투입된 백신의 투약량

122개 :폴리오플러스 보조금이 지원된 국가의 수

100만 명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봉사한 로타리안의 수



우리의 활동 1. 교육 활동



\$1억 :레바논 전역의 학교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투입된 로타리 보조금 총액

성인들을 위한 문해력 교육: 미국 디트로이트 지역의 성인 인구 절반 이상이 문맹이라는 연구조사 결과, 현지 문해력 전문단체와 파트너가 되어 강사들을 영입, 연수시키고 있다.

새로운 학교 설립: 아프가니스탄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학교를 설립했다.

기본적인 독해 및 셈능력을 갖추지 못한 **2억5천만** 명의 아동 중 절반은 학교에 등록이 되었음에도 이러한 기본 능력이 부족

초등학교 교사 중 국가 기준에 따른 교육을 받은 비율 **75%** 미만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중 **5,900만** 명은 학교에 미등록

성인 문맹인구 **7억5천만** 명 중 3분의 2가 여성

(자료 제공 : 국제로타리 한국지국 재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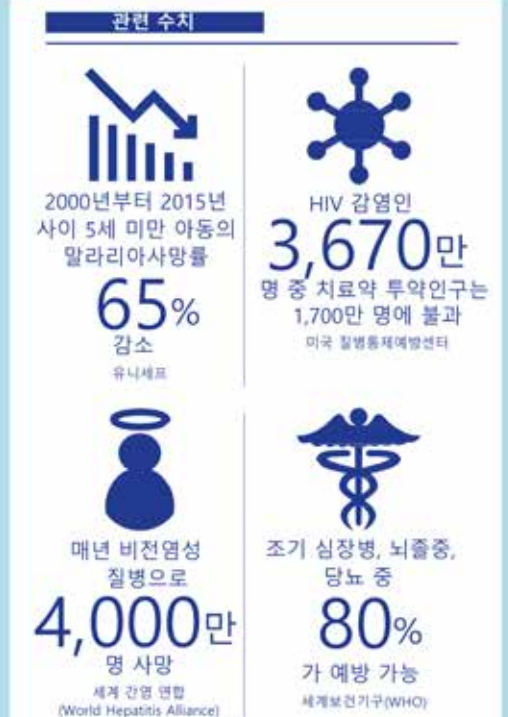
우리의 활동 2. 질병 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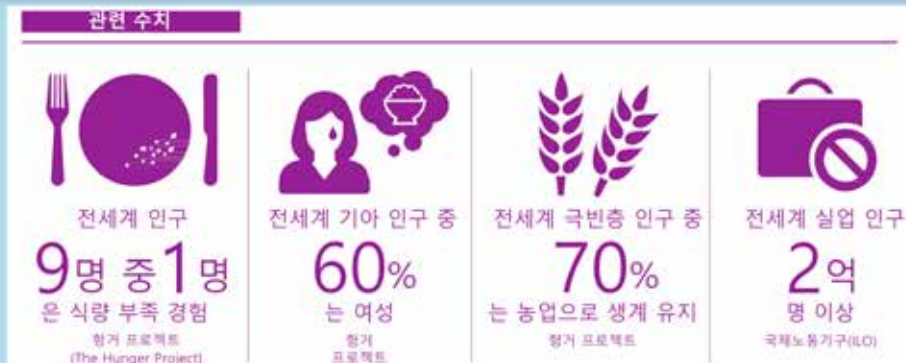
\$6,500만 :질병 퇴치에 투입된 로타리 보조금 총액

안전한 물 공급: 로타리는 파트너 단체들과 협력해 가나 인구의 80% 이상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함으로써 기니벌레병 퇴치에 기여하고 있다.

HIV 감염률 감소: 라이베리아의 현지 여성들이 임신 초기에 HIV 검사를 받도록 돕고 있으며, 산전 관리를 통해 2년 만에 태아로의 수직 감염을 95% 이상 감소시켰다.



우리의 활동 3. 지역경제 활성화



\$2,900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빈곤 완화에 투입된 로타리 보조금 총액

기술 개발과 사업 연수: 과도르 에스메랄다 지역에서 250건이 넘는 소액융자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주민 270여 명에게 재봉, 배관, 미소금융, 자영업체 경영, 리더십 등 다양한 직업기술 분야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우리의 활동 4. 모자보건 향상

관련 수치



이동 산전 클리닉: 서반구에서 산모와 영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아이티에 현대 장비를 갖춘 의료차량을 제공해 조산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오지의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암 진단 장비 제공: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여성들의 사망률이 높은 타밀 나두의 첸나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암 진단 장비가 부착된 RCME 의료 차량을 제공하고 주민 연수를 실시했다.



우리의 활동 5. 평화 증진



2017 애틀랜타 국제대회에서 있었던 착취 및 인신매매 종식을 위한 촛불 집회

100건 :매년 로타리 평화센터에서 수학할 인재들에게 제공되는 펠로우십의 수

\$1.42억 :평화 증진을 위해 로타리가 현재까지 모금한 금액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강화:
필리핀의 로타랙트 클럽들은 학교폭력 방지 캠페인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어린 나이에부터 평화로운 방식으로 갈등에 대처하도록 가르친다.

관련 수치



우리의 활동 6. 깨끗한 물 공급 및 위생개선



110

:로타리-USAID의 파트너십으로 위생시설이 개선된 가나의 학교 수

2030년

:전세계 인구에게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을 제공한다는 로타리 목표의 타깃 연도

\$24

:한 사람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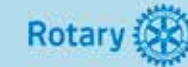
관련 수치

전세계적으로
3명 중 1명
명은 적절한 화장실에
대한 접근성 부족
WHO/UNICEF 공동
모니터링보고서

전세계 인구 중
10%
가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부족
WHO/UNICEF 공동
모니터링보고서

위생시설 부족으로
20초
마다 아동 한
명씩 사망
WHO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투자
1달러
당 4달러의
생산성 제고
Lift Water



로타리 재단의 기부금 종류

기부금 종류		기부금 사용 내용
연차기금 (Annual Fund)	웨어 (Share)	3년 후, 기부금이 세계기금과 지구지정기금(DDF)에 50:50비율로 분할되어 재단 프로그램에 사용
	세계기금 (World Fund)	기부금이 전세계적인 로타리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
인다우먼트 기금 (Endowment Fund)	웨어 (Share)	기부금은 영구적으로 보존, 투자 수익금이 세계기금과 지구지정기금(DDF)에 50:50비율로 분할되어 사용
	세계기금 (World Fund)	기부금은 영구적으로 보존, 투자 수익금이 전세계적인 로타리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
	6대 초점분야	기부금은 영구적으로 보존, 투자 수익금 전체가 선택한 초점분야에서의 글로벌 보조금(인도주의 프로젝트, 장학금, 직업연수팀)을 지원하는데 사용
제한기금	로타리 평화센터	기부금은 영구적으로 보존, 투자 수익금 전체가 로타리 평화센터를 위해 사용
	PolioPlus 기금	기부금 전액이 소아마비 박멸에 사용
	글로벌 보조금	승인된 글로벌보조금에 사용

국제로타리 3650지구 2018-19년도 클럽별 재단 기부 현황



2018년 9월 15일 현재

지역 구분	클럽명	로타리재단(TRF)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2018. 6. 30 현재		2018년도 8~9월 중 기부액 (2018. 8. 1 ~ 9. 15)			2018-19년도 누계			3650지구 각 클럽별 종합 누계구좌		2018. 6. 30 현재		2018년도 8~9월 중 기부액		2018-19년도 누계		누계	
		PHF	인다우 먼트	PHF	인다우 먼트	Polio Plus	PHF	인다우 먼트	Polio Plus	PHF	인다우 먼트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1지역	서울	393	142	2			3			396	142	166	114,314					166	114,314
	서울용산	32								32		126	32,708					126	32,708
	서울신라	72	2							72	2	84	40,221					84	40,221
	서울장충	167	3							167	3	130	59,700					130	59,700
	서울남술	11								11		4	1,200					4	1,200
	서울코암	87								87		12	4,500					12	4,500
	서울뉴광진	15								15									
	서울인터코리아	3								3									
	1지역합계	780	147	2	0	0	3	0	0	783	147	522	252,643			0	0	522	252,643
2지역	한양	705	544	11			11			716	544	351	156,221					351	156,221
	서울관훈	418	7	7			15			433	7	326	392,244		1,200		3,300	326	395,544
	아가페서울	20								20		12	3,900					12	3,900
	서울신세기	4								4		6	1,800					6	1,800
	서울리더스	43								43		18	21,000					18	21,000
	2지역합계	1,190	551	18	0	0	26	0	0	1,216	551	713	575,165	0	1,200	0	3,300	713	578,465
3지역	새서울	277	56				1			278	56	192	223,108					192	223,108
	서서울	244	67							244	67	184	114,256					184	114,256
	서울안암	77	1							77	1	64	17,400					64	17,400
	서울남산	555	532	3			3			558	532	378	2,647,913		900		900	378	2,648,813
	서울상록	55								55		11	3,400					11	3,400
	서울예장	129	9				1			130	9	8	17,400					8	17,400
	서울아르떼	7								7									
	서울새노원	19								19									
	서울양정월악	1								1									
	서울하원																		
	서울화인																		
	3지역합계	1,364	665	3	0	0	5	0	0	1,369	665	837	3,023,477	0	900	0	900	837	3,024,377
4지역	새한양	154	210	1			2			156	210	58	68,000					58	68,000
	서울명동	42	1							42	1	75	48,800					75	48,800
	서울북악	284	5	1			1			285	5	257	114,100		300		300	257	114,400
	서울회현	243	81							243	81	105	67,100					105	67,100
	서울창덕	77					1			78		7	2,100					7	2,100
	서울인유	13								13		0	0					0	0
	서울루멘																		
	서울리워드																		
	4지역합계	813	297	2	0	0	4	0	0	817	297	502	300,100	0	300	0	300	502	300,400
5지역	동서울	233	2							233	2	119	208,947					119	208,947
	한성	698	5	2			4			702	5	184	217,832					184	217,832
	서울흥인	23								23		26	40,800					26	40,800
	서울옥수	61	1							61	1	36	17,700					36	17,700
	서울신용산	47								47		10	18,600					10	18,600
	서울아리랑	2								2									
	5지역합계	1,064	8	2	0	0	4	0	0	1,068	8	375	506,879	0	0	0	0	375	506,879

2018년 9월 15일 현재



지역 구분	클럽명	로타리재단(TRF)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2018. 6. 30 현재		2018년도 8~9월 중 기부액 (2018. 8. 1 ~ 9. 15)			2018-19년도 누계			3650지구 각 클럽별 종합 누계구좌		2018. 6. 30 현재		2018년도 8~9월 중 기부액		2018-19년도 누계		누계	
		PHF	인다우 먼트	PHF	인다우 먼트	Polio Plus	PHF	인다우 먼트	Polio Plus	PHF	인다우 먼트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봉사의 인 수	기부액 (단위:천원)
6지역	서울중앙	620	81	5			5			625	81	164	198,650		300		300	164	198,950
	서울정동	120	3							120	3	87	41,500					87	41,500
	서울보신각	50	1							50	1	30	25,600					30	25,600
	서울파고다	27								27		4	1,000					4	1,000
	서울사직	33								33		7	2,400					7	2,400
	서울예지	65	8				1			66	8	33	17,100					33	17,100
	서울마포	10					1			11									
	서울소통																		
	서울C&C	1								1									
	6지역합계	926	93	5	0	0	7	0	0	933	93	325	286,250	0	300	0	300	325	286,550
7지역	서울한강	458	852	3			4			462	852	230	1,701,041					230	1,701,041
	서울무악	195	189	3			4			199	189	245	123,400		300		300	245	123,700
	서울장안	22	1							22	1	10	3,000					10	3,000
	서울화산	54	1				1			55	1	12	5,100					12	5,100
	서울장원	20	5							20	5	3	1,500					3	1,500
	서울빛그림																		
	서울낭만																		
	서울호서																		
	7지역합계	749	1,048	6	0	0	9	0	0	758	1,048	500	1,834,041	0	300	0	300	500	1,834,341
8지역	서울남대문	171	280							171	280	107	110,900					107	110,900
	서울아미	100	4							100	4	202	61,300					202	61,300
	서울새신라	52								52		16	4,800					16	4,800
	서울강북	195	1				1			196	1	79	54,400					79	54,400
	서울늘푸른	13	1							13	1	3	900					3	900
	서울미창재																		
	서울새노원	19								19									
	서울원호																		
	하이서울																		
	8지역합계	550	286	0	0	0	1	0	0	551	286	407	232,300	0	0	0	0	407	232,300
9지역	서울성동	233	1							233	1	177	264,600					177	264,600
	서울도봉	166								166		108	53,200					108	53,200
	한남	41	1							41	1	45	35,184					45	35,184
	서울새문안	137	6							137	6	65	40,300					65	40,300
	새강북	171	1				1			172	1	69	69,900			300	69	70,200	
	서울북부	68								68		23	6,900					23	6,900
	서울노원	24								24		30	13,200					30	13,200
	서울위드	3								3									
	서울새한빛	4								4		1	1,200					1	1,200
	9지역합계	847	9	0	0	0	1	0	0	848	9	518	484,484	0	0	0	300	518	484,784
10지역	서울동남	92					5			97		110	30,802					110	30,802
	뉴서울	88	8							88	8	43	21,550					43	21,550
	서울SRS	28	1							28	1	16	6,300					16	6,300
	서울삼청	108	5							108	5	72	53,700					72	53,700
	서울문화	169	9				2			171	9	65	207,900					65	207,900
	서울동방	5								5		1	300					1	300
	10지역합계	490	23	0	0	0	7	0	0	497	23	307	320,552	0	0	0	0	307	320,552
총계		9,301	3,238	38	0	0	67	0	0	9,368	3,238	5,486	8,179,486	0	3,000	0	5,400	5,486	8,184,886



로타리재단 기부

AKS [2]

 **고성대(한양)**
기부액
\$1,000
Total
\$539,000

AKS [1]

 **구자두(서울남산)**
기부액
\$1,000
Total
\$286,200

AKS [1]

 **박영구(서울중앙)**
기부액
\$1,000
Total
\$268,282

AKS [1]

 **윤상구(새한양)**
기부액
\$1,000
Total
\$255,600

Major Donor [2]

 **박명석(서울북악)**
기부액
\$1,000
Total
\$28,300

Major Donor [1]

 **서창우(서울남산)**
기부액
\$1,000
Total
\$22,100

Major Donor [1]

 **조남욱(서울중앙)**
기부액
\$1,000
Total
\$20,158

Major Donor [1]

 **금진호(한양)**
기부액
\$1,000
Total
\$1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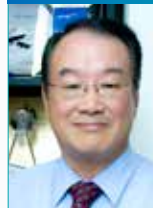
Major Donor [1]

 **이호규(서울남산)**
기부액
\$1,000
Total
\$17,000

Major Donor [1]

 **조영상(서울중앙)**
기부액
\$1,000
Total
\$15,057

Major Donor [1]

 **김석규(서울중앙)**
기부액
\$1,000
Total
\$14,058

Major Donor [1]

 **홍두기(서울관훈)**
기부액
\$1,000
Total
\$13,030

Major Donor [1]

 **장세호(서울)**
기부액
\$1,000
Total
\$12,400

Major Donor [1]

 **이종철(한양)**
기부액
\$1,000
Total
\$12,000

Major Donor [1]

 **윤호탁(서울관훈)**
기부액
\$1,000
Total
\$11,220

Major Donor [1]

 **이춘경(서울)**
기부액
\$490
Total
\$11,000

Major Donor [1]

 **최종학(서울관훈)**
기부액
\$1,000
Total
\$10,320

Major Donor [1]

 **이영수(한양)**
기부액
\$1,000
Total
\$10,300

Major Donor [1]

 **정병찬(서울중앙)**
기부액
\$100
Total
\$10,082

Major Donor [1]

 **이재찬(서울무악)**
기부액
\$1,000
Total
\$10,003

Major Donor [1]

 **장성현(서울)**
기부액
\$1,460
Total
\$10,000

8stone

 **박광훈(서울관훈)**
기부액
\$1,000
Total
\$9,120

6stone

 **송귀영(한성)**
기부액
\$1,000

4stone

 **윤구홍(한양)**
기부액
\$3,000

4stone

 **이병환(한양)**
기부액
\$1,000

3stone

 **최경순(한양)**
기부액
\$1,000

3stone

 **조상원(서울중앙)**
기부액
\$1,000

3stone

 **김종문(서울무악)**
기부액
\$1,000

2stone

 **전병목(서울관훈)**
기부액
\$1,000

2stone

 **송형진(서울관훈)**
기부액
\$1,000



로타리재단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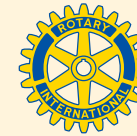
2stone  유승식(서울관훈) 기부액 \$100	1stone  김성일(서울무악) 기부액 \$1,000	1stone  김석철(한양) 기부액 \$1,000
1stone  장석암(한성) 기부액 \$1,000	1stone  한기정(서울관훈) 기부액 \$1,000	PHF  한태숙(서울) 기부액 \$590
		PHF  강명희(한양) 기부액 \$1,000



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 기부

2018년 8월 1일 ~ 9월 15일

관명장학의인(1)  서창우(서울남산) 기부액 900,000원 Total 39,900,000원	개인장학의인(3) 홍두기(서울관훈) 기부액 300,000원 Total 10,500,000원	개인장학의인(2) 최종학(서울관훈) 기부액 300,000원 Total 8,200,000원
개인장학의인(2) 윤호탁(서울관훈) 기부액 300,000원 Total 6,300,000원	개인장학의인(1) 이성철(서울중앙) 기부액 300,000원 Total 5,200,000원	개인장학의인(1) 박명석(서울북악) 기부액 300,000원 Total 5,000,000원
		봉사의인(2) 김성일(서울무악) 기부액 300,000원 Total 600,000원



국제로타리 3650지구 클럽 봉사자금 송금 및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

국제로타리 3650지구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86호(2010.3.31)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로타리 3650지구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아래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인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필요 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과세 기간의 소득금액 × 100분의 30
- ◆ 법인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손금 산입한도액
 -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 100분의 10

봉사활동 기금, 3650지구 송금계좌 :

KEB하나은행 630-008116-430 (사)국제로타리3650지구

클럽 자체에서 주관하는 봉사 사업에 회원이 기부금을 내는 경우에는 일단 지구로 기부금을 송금한 후,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면 개인별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클럽 회장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지구에서 재송금할 것이며, 봉사활동이 완료 되면 봉사한 내용과 영수증을 지구로 보내 주십시오.

•문의: 지구사무국 02-707-3650

◆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 요청 양식(예) ◆

클럽명:

기부자(또는 기부 단체명)			금 액	비 고 (봉사활동 내용)	재송금 계좌번호
성 명 (단체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2018.

클럽 봉사자금의 송금과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합니다.

클럽 회장 _____ 서명

스타키 로타리클럽, 창립 후 첫 봉사활동 펼쳐

‘제1회 서울시 발달장애인 어울림 볼링대회’ 후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앞장서



국내 보청기 판매 1위 스타키그룹(대표 심상돈)이 창립한 스타키 로타리클럽이 첫 봉사활동으로 지난 9월 14일 성동구에 위치한 KB볼링센터에서 열린 2018년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어울림 볼링대회와 함께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섰다.

이번에 처음 열린 서울시 발달장애인 어울림 볼링대회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체육 인구 확대와 균형적 발전을 도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 증진 및 화합, 대회 참여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우수선수 발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스타키그룹의 철학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번 대회에는 약 200여명의 선수단과 운영진 임원들이 참여했으며 정식경기와 시범 경기등을 선보이며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스타키그룹은 이번 대회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도시락 및 간식을 제공했다. 특히 10여명의 직원이 봉사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장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이번 대회에는 박원순 시장 배우자 강난희 여사, 성동구청 정원오 구청장,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대표, 국제로타리 3650지구 장세호 총재,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 서창우 한국파존스 대표(지구 연수위원장) 등이 참여하며 뜻을 함께 했고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2018 제1회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어울림 볼링대회

2018.9.14일(금) 10:00 장소: KB볼링센터



국제로타리 3650지구, 스타키그룹, 스타키 로타리클럽 등 다양한 기업 및 봉사단체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또한 심상돈 대표를 포함 스타키그룹 직원으로 구성된 스타키 소셜 엔터프라이즈 로타리클럽 20여명이 참석하여 행사 진행 및 정리를 도왔다.

이날 행사의 격려사를 한 강난희 여사는 “발달장애인 볼링이 더욱 더 활성화돼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장애인 체육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스타키그룹 심상돈 대표는 난청환자 인식개선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한국장애인부모회 후원회 공동대표 및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후원회 회장을 겸임하며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



2018-19 국제로타리 3650지구 클럽 회원 현황

2018년 7월 1일 기준 회원수 2,098명 | 순증 83명 | 2018년 9월 20일 현재 클럽 회원수 2,181명



지역	클럽명	회장명	회원 현황					
			2018. 7. 1 회원수	금회기 순증목표	입회	탈회	순증감	현재 회원수 (2018. 9. 20 현재)
1지역 한태숙	서울	반문열	27	10			0	27
	서울-영리더스 위성		24			14	-14	10
	서울-소셜비즈메이커		8				0	8
	서울용산	전금분	12	3			0	12
	서울신라	장희정	19	3			0	19
	서울장충	배성례	18	3			0	18
	서울남술	김서영	5	7			0	5
	서울코암	이영준	57	10			0	57
	서울뉴광진	이경희	13				0	13
	서울인터코리아	엄창섭	17	3			0	17
1지역 합계			200	39	0	14	-14	186
2지역 최경순	한양	윤구홍	72	18			0	72
	한양-연세 위성		34	30			0	34
	서울관훈	정휘영	65	6	1		1	66
	서울신세기	임광현	10				0	10
	아가페서울	김형주	16	5	1	2	-1	15
	서울리더스	강석희	16	9			0	16
2지역 합계			213	68	2	2	0	213
3지역 황순신	새서울	이현성	25	10			0	25
	서서울	김재용	10				0	10
	서울안암	김광두	12				0	12
	서울남산	윤승진	50	5			0	50
	서울상록	김진택	25	1			0	25
	서울예장	최신일	37	8	1		1	38
	서울아르떼	백연옥	9				0	9
	서울양정월악	김명덕	15				0	15
	서울하원	이정숙	7	3			0	7
서울FINE	남윤재	7				0	7	
3지역 합계			197	27	1	0	1	198
4지역 박상진	새한양	이세진	24				0	24
	새한양-누리 위성		19				0	19
	서울명동	김병직	11	1			0	11
	서울복악	김범생	19	2			0	19
	서울회현	문성우	75	10			0	75
	서울창덕	안상근	25	25	4		4	29
	서울인유	정한용	21	1			0	21
	서울LUMEN	박정원	2				0	2
	서울리워드	이재욱	20	10			0	20
4지역 합계			216	49	4	0	4	220
5지역 연기영	동서울	김용범	10	7			0	10
	한성	김무일	88	22			0	88
	한성-위너스 위성		23				0	23
	서울흥인	최문휴	15	2			0	15
	서울옥수	류인득	9				0	9
	서울신용산	정지웅	10	2	4	2	2	12
	서울아리랑	류 청	14				0	14
5지역 합계			169	33	4	2	-2	171

지역	클럽명	회장명	회원 현황					
			2018. 7. 1 회원수	금회기 순증목표	입회	탈회	순증감	현재 회원수 (2018. 9. 20 현재)
6지역 강무진	서울중앙	조상원	52	3	1		1	53
	서울정동	권영민	18	3			0	18
	서울보신각	김정균	12				0	12
	서울파고다	김성일	5	2			0	5
	서울사직	최홍진	24	10		4	-4	20
	서울예지	설영희	13				0	13
	서울마포	이동주	21				0	21
	서울소통	주영대	13	10			0	13
서울C&C	김현숙	29	5			0	29	
6지역 합계			187	33	1	4	-3	184
7지역 이영석	서울한강	김범준	59	3	1	4	-3	56
	서울무악	김종문	80	10			0	80
	서울무악-올타리		15			0	15	
	서울무악-아너스		20		0	20		
	서울장안	오규섭	25			0	25	
	서울화산	양경렬	28	2		0	28	
	서울장원	양규철	9			0	9	
	서울빛그림	박경철	10			0	10	
	서울낭만	강민성	40	1		0	40	
	서울호서	강일구	33	2		0	33	
7지역 합계			319	18	1	4	-3	316
8지역 박헌영	서울남대문	이명선	17		1		1	18
	서울아미	이정희	14	6			0	14
	서울아미-예술사랑		4		0	4		
	서울새신라	김득영	17	2		0	17	
	서울강북	윤경식	17		1	1	18	
	서울강북-랑코리아		15		0	15		
	서울늘푸른	서종렬	23		1	10	-9	14
	서울늘푸른-올타리		9		0	9		
	서울새노원	권연옥	14	6	3	3	17	
	서울미창재	박지철	21			0	21	
	서울원호	선우식	6			0	6	
하이서울	유병조	30			0	30		
8지역 합계			187	14	6	10	-4	183
9지역 남궁근	서울성동	김용준	17				0	17
	서울도봉	김형갑	13				0	13
	한남	최승호	14			5	-5	9
	서울새문안	김주인	24				0	24
	새강북	안병석	26	1		1	-1	25
	서울북부	이영길	20	5			0	20
	서울노원	이현우	13				0	13
	서울위드	정영희	15				0	15
	서울새한빛	하헌성	31				0	31
	서울새한빛 위성		14			0	14	
9지역 합계			187	6	0	6	-6	181
10지역 김학자	서울동남	문찬정	16	4			0	16
	뉴서울	이수홍	4				0	4
	서울SRS	김학자	25		5	5	0	25
	서울삼청	원장현	35	5		6	-6	29
	서울삼청 청계		51			0	51	
	서울문화	박찬희	41	1	1		1	42
	서울문화-한트		10			0	10	
	서울문화-에베레스트		21			0	21	
서울동방	이형복	20				0	20	
10지역 합계			223	10	6	11	-5	218
11지역	스타키	총재특별대표 심상돈			30		30	30
	ERA	총재특별대표 이영석			20		20	20
	지엔피링크	총재특별대표 황순신			20		20	20
	KCC	총재특별대표 이상현			20		20	20
	체리쉬	총재특별대표 유준식			20		20	20
11지역 합계			0	0	110	0	110	110
총 누계			2,098	-	136	53	83	2,181



로타리 입회를 축하드립니다!

신입회원	추천인	신입회원	추천인	신입회원	추천인
					
윤수아(서울무악) 1970년생 입회일: 2018. 08. 21 (주)지오인터내셔널 부대표	안은숙(서울무악)	최경아(서울한강) 1973년생 입회일: 2018. 07. 05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이춘호(서울한강)	조정연(서울중앙) 1985년생 입회일: 2018. 07. 03 조에나 대표	김상진(서울중앙)

신입회원	추천인
	
강수진(서울새노원) 1971년생 입회일: 2018. 09. 10 하나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	김효숙(서울새노원) 1958년생 입회일: 2018. 09. 10 삼성화재 지점 대표
	
이지윤(서울새노원) 1977년생 입회일: 2018. 09. 10 현대인테리어 과장	권연옥(서울새노원)

Congratulations!

자선 음악회 '사랑의 향기'

로타리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자선 음악회 '사랑의 향기'

주 최 | 국제로타리 3650지구 문화예술위원회

공연일시 |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저녁 7시~8시 30분

행복은 '바이러스'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뜻도 있고, 다른 사람의 습관, 분위기, 기분 등에 영향을 받아 '물이 든다.'라는 표현도 있다. '공감' 역시 사람의 감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으로 이미 확인된 연구 결과처럼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행복 바이러스' 덕분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는 사랑을 미루지 말아서 행복과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우분투(ubuntu)'란 인류학자의 아이들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중, 뛰어가서 1등을 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다 주겠다고 했으나 아이들은 각자 뛰어가지 않고 모두 손잡고 가서 함께 먹었다는 일화가 있다.

아이들에게 "왜 함께 뛰어갔지?"하고 묻자 아이들은 '우분투(ubuntu)'라고 외쳤다. 한 명만 행복해지는 것보다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즉, '우분투(ubuntu)'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I am because you are).'라는 뜻이다. 3650지구의 자선 음악회 '사랑의 향기'는 '우분투(ubuntu)'처럼 모두 함께 행복을 나누자는 것이다. 이번 자선 음악회를 통하여 함께 행복해져 '행복을 나누는 봉사'로 결실 맺기를 바란다. 우리는 삶에 익숙해져 행복과 나눔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기 십상이다. 로타리안은 네 가지 표준(진,공,우,유)을 마음속 깊이 새겼기에 이 한 마디에 공감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선 음악회 '사랑의 향기'는 행복을 나누는 로타리안의 화합의 장이 될 것이다.

모두 함께 나누어 행복해지는
'사랑의 향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주최·주관 | RI 3650지구·지구문화예술위원회

후원 | 지구동호위원회·지구여성위원회

소통회 & 소통RC·뉴서울RC-창립30주년기념회·제10지역·KBH포럼

목표 | 세계 어린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봉사와 나눔

- 교육의 현장 개선
- 환경 개선의 건강한 삶을 위한 봉사
- 에티오피아 아사코 마을
- 시리아 난민(오스트리아 지방 거주)
- 필리핀 산간지역
- 한국의 장애인 교육

공연 일시 |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저녁 7시~8시 30분

공연 장소 | 백석아트홀 10층

공연 리셉션 장소 | 백석아트홀 9층 저녁 6시

(공연 시작 전에 간단한 식사·차와 만찬)

티켓 | 2만 원 (티켓 구입처는 02-707-3650)

오시는 길 | 방배역 2번 출구 - 우회전 직진 15m

좌측 백석대학교 석조건물

공연 방법 | V,M,P

(Visual, Management, Performance)

지구 로타리안의 친지, 가족, 그리고 로타리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초대하는 행복 바이러스의 나눔과 봉사입니다. 예산 계획과 결산을 '드러내기 경영(Dr.J,C,H 이론)'으로 보여 드려 봉사 집행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악회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중매쟁이’

서울신용산로타리클럽과 몽골 TUUL 로타리클럽과의 국제교류



우리가 흔히 “중매쟁이”라고 하면 결혼을 연상하게 하는 용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영어의 “matchmaker”라는 표현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필자는 우리 서울신용산로타리클럽의 자매클럽인 몽골 울란바토르市 TUUL 로타리클럽(3450지구)과의 오랜 인연으로 울란바토르 시내의 어려운 지역 아동에게 학용품과 치약·치솔 등을 전달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안내봉을 전달하였으며, 중·고등학교에 이발소와 미용실을 건립해 주었고, 그 외에도 아스피린 등 가정상비약을 전달하는 등 비교적 잔잔하게 각종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덕분에 우리클럽 회원과 가족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몽골 체험여행을 자주하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인지 여러 지구에서 몽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봉사활동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8월경 3662지구(제주) 2015년~2016년 한림클럽 회장(정병익)으로부터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하

고 싶은데 사업 분야는 국제로타리의 4대 봉사활동 범위 내에서 하고 싶으며, 예산규모는 53,000USD 정도라고 하였다. 몽골에 몇 번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는 도시규모에 비해 도시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기후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150만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임에도 배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이 도시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이다.

특히 울란바토르市 변두리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의 열악한 정도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식수와 교통수단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클. 서울신용산RC 전회장
최종련



주민들은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어른은 물통, 어린이는 물병으로 인접한 우물이나 급수차에서 물을 길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과이고, 마을에서 시내 중심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 km를 걷거나 지나가는 개인차량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기도 한다.(1km를 이용하는데 환화 450원 정도를 지불한다)

이러한 지역적 실정을 감안하여 필자는 “한림로타리클럽” 측에 울란바토르市의 상수도 시설이 없는 마을에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해 우물 개발(2곳)과 러시아 인접 국경지역으로서 “국제자유무역지구”로 지정된 “알탄블락”이라는 도시의 공동우물에 정수기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한림로타리클럽에서도 이 제안을 수용하여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TUUL 로타리클럽의 내부사정(국제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부족과 경험부족)과 홍콩에 위치한 3450지구

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문제가 많았으나, 안내신을 가지고 2여 년 간 준비하여 2018년 2월 RI의 승인(GG1745072)을 받게 되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인 4월 23일 사업자금이 입금조치 되어 약 1개월에 걸쳐 업체선정, 수맥탐사, 공사실시 등 5월 23일까지 세 지역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다.(3662지구에서는 차태환 전 총재, 정병익 전 회장 등이 현지를 방문하여 유치원생,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실시) 이렇게 준공된 우물과 정수시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지난 8월초에 필자와 신용산로타리클럽 회원 몇 사람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였다. 시간관계상 울란바토르 외곽지역에 우물이 설치된 유치원(171유치원, 166유치원) 두 곳만 방문하였지만, 두 곳 모두 맑고 깨끗한 물이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었고 육신의 갈증마저도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다. 솟구치는 물길을 보고 유치원생들은 신기해 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반가워하면서 고마워하는 모습이 필자는 물론 함께 참석한 신용산로타리클럽 회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우리나라 속언에 중매쟁이는 “잘되면 버선 한 켤레, 못되면 뺨이 석대”라는 말이 있듯이 국제봉사활동에서 “matchmaker”는 언어, 문화, 비용 등 다양한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필자는 버선 선물은 받지 못하더라도 뺨은 맞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성의를 다하여 몽골을 오고가면서 중매쟁이 역할을 열심히 한 결과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에 우물과 정수시설이 마련되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한림클럽의 요청으로 각 사업장에 기념조형물(제주 돌하르방 및 로타리 표식)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로타리의 국제봉사활동 인연으로 대한민국 제주도 화산석으로 제작된 “돌하르방”이 머나먼 이국땅으로 시집을 가게 된 것이다. 필자는 스스로 “중매쟁이” 역할을 잘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림클럽이나 TUUL클럽으로부터 “뺨 석대”는 없었고, 버선적인 감사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회가 되면 국경지역의 자그마한 도시인 “알탄블락”을 방문하여 정수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은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계획이다. ☺

서울중앙로타리클럽, 탑골공원·원각 점심 밥퍼 봉사 참여 - 추석을 맞아 100만원 성금 전달

서울중앙로타리클럽은 2019년 3월 12일부터 매주 둘째 주 월요일 11시30분 부터 1시 까지 사회복지 원각에서 주최하는 밥퍼 봉사에 참여 하여, 탑골공원 주변 배고픈 노인 180명 내지 200여명분의 점심 배식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12~15명 내외의 신입회원과 선배 로타리안이 함께 참여하는 배식 봉사는 신입회원들이 더 열성적이어서 동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회장님의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로타리마크가 새겨진 봉사 유니폼도 만들어 착용하고, 배식팀으로 밥을 푸고 국을 푸고 특식을 제공하고 양념과 나물을 담고 자리안내와 설거지 자리 정리등 각조별 역할분담으로 임무를 부여받아 짧은 시간 순조로운 배식을 진행하고 있다.

신입회원의 봉사참여는 6개월을 실시하는 동안 기대 이상의 참여로 선배 로타리안과 함께 척척 호흡이 맞아 오히려 배식 봉사를 기다릴 정도다.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을 위한 점심 배식, 집에서 해 보지 않았을 밥 푸고, 국 푸고, 설거지하고, 모두가 술선수범하는 모범 가장이고 주부일 것만 같았다.

매달 둘째 주 만나는 배고픈 노인을 위한 점심봉사 때때로 로타리 유관 기관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실시하는 봉사.

따뜻한 미소와 맛있는 식사를 드림으로서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작은 봉사의 시작.

이 사회의 훈훈한 미담으로 전해졌으면 한다. 참고로 탑골공원 밥퍼 봉사의 시작은 1993년 보리스님께서 공원에 왔다가 배고픈 노인들을 보게 되었고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빵 우유 배식을 시작하였고, 그 후 다른 스님과 불자들의 도움으로 1,200여명분의 밥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2015년부터는 원경스님이 어어 받아 1년 365일 탑골공원 곁에 원각에서 매일 150~200여명의 점심 식사를 무료급식하고 있다. ☺



글. 서울중앙RC 재무 김태연



국제로타리3650지구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 안내

<https://www.facebook.com/rotary3650>



국제로타리3650지구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가 지난 8월부터 활발히 운영중입니다. 페이스북을 활용하시는 모든 로타리안과 가족 여러분들께 적극 소개 바랍니다. 들어가셔서 '좋아요' 와 '팔로우'를 많이 눌러주세요. 전 세계 모든 로타리안들과 로타리 패밀리들이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클럽에서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R3650지구 사무국 (rotary3650@daum.net)

태풍도 막지 못한 ‘한성로타리클럽 직장주회’ 회원 및 가족 30명,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산업시찰



한성로타리클럽(회장 김무일) 회원들은 지난 8월 23일 (목) 충남 아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으로 산업시찰(직장주회)을 다녀왔습니다. 그 날 새벽은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급습한다는 속보가 거듭되는 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결단은 아마도 한성 로타리의 의지와 설립정신에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김무일 회장님과 장충식 전총재님, 팽재유 전총재님을 비롯, 회원 30명과 가족 및 게스트께서 참석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40인승 버스를 제공해주었는데, 이 버스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만석을 이뤘습니다.

현대자동차 박종일 대리께서 인솔자로 참석해 모든 일정을 함께하며 안내해주셨고, 현대차에서 생수 및 음료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산공장 도착 후 공장장 및 임원들께서 로비에서 환대해 주셨고, 홍보실에서 공장장의 인사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홍보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성로타리 클럽의 직장주회를 회의실에서 하였고, 여러 회원님들의 산업시찰 방문 소감도 들었습니다. 주회 후 문화관에서 현대차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중식 후 본격적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아산공장은 1996년에 준공되어 현재 4,000여명이 근무

중이고 공장 면적이 축구장 약 240배 정도의 큰 면적이며, 연간 완성차는 약 30만대, 엔진은 약 6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현재는 그랜저와, 쏘나타만 아산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프레스-차체조립-도장-의장까지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프레스 공장은 철판코일을 가져와서 각 차량에 맞는 패널을 성형해서 찍어내고 만드는 시설입니다. 대부분 로봇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 인원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차체조립공장은 외관을 완성하고 로봇으로 용접하는 시설입니다. 철판 되어있는 차체 및 문짝 등은 대부분 로봇이 작업합니다.

도장 공장은 페인트 도료를 도포하고 방진, 방수제를 도포하여 말리는 작업인데 전체 23시간의 11시간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외부 전하 시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영상으로만 보았습니다.

의장 공장은 완성된 차체에 부품을 조립하고 완성하는 시설입니다. 로봇보다 직원들이 직접 숙련된 작업으로 일



글. 한성RC 전총무 이용원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완성차는 52초에 1대씩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은 세계의 자동차 시장에서 어느 자동차 업체와도 경쟁을 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최고의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 시찰을 하면서 우리 회원 모두 감탄과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 중에 “해 보기나 해 봤어” 라

고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국가 경제력을 갖추기까지 자동차, 건설, 중공업 등 모든 분야에 도전정신을 가지고 신화를 만들어 내신 정주영 회장님이 계셨기에 많은 근로자들이 국가의 산업 일꾼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산공장 임원진 여러분들의 배움을 받으며 모든 시찰을 마치고 서울로 출발하였습니다.

태풍의 염려 속에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산업시찰 방문을 결단해 주시고, 계획해 주신 김무일 회장님, 유창열 총무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로타리클럽의 재정투명화의 필요성과 방안



글. 5지역 대표, 한성로타리클럽 연기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재정투명화, 왜 필요한가?

2011년에 발생한 한국로타리장학재단의 35억여원 공금횡령사건으로 우리 한국로타리안들은 많은 마음고생을 했다. 또한 몇 년전 지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총재 이·취임행사를 연기하고 행사장소를 바꾸어서 겨우 치른 적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클럽별로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크고 작은 금융사고로 클럽회원들 간의 믿음이 깨지고 갈등이 심화되어 존폐위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물론 비단 우리 로타리클럽뿐만이 아니라 종교단체 등 각종 사회단체들도 각종 재정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구성원들이 하나 둘씩 그 단체를 떠나고 만다. 우리 로타리도 이런 일로 많은 로타리안들이 떠났고, 후유증은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치유되지 않는다. 지구 총재와 클럽회장이 매년 내세우는 최대의 목표가 “회원증강”과 “PHF 등 봉사성금의 확대”이지만 성과를 내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재정투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재정의 투명성 요구는 지구와 클럽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제로타리(RI) 본부에서도 회원 상호간의 신뢰성을 높여 회원증강과 기부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한 로타리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당연한 목소리인 것이다.

재정투명화,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로타리의 기초단위이며 뿌리인 클럽의 재정 투명화 방안에 한정하여 간단히 필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클럽의 정관과 세부규정에 재정투명화를 위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신생클럽은 물론이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클럽들도 회장이나 재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며, 매년 로타리 회기가 끝나면 재무관련 인수인계가 신규 임원의 사적인 통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로타리클럽이 법인으로登記되어 있어 법인명의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임의단체로 되어 있어서 회장 등 임원 몇 사람이 회계원칙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래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도덕군자가 아닌 이상 비리를 저지르기 쉽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클럽 별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정관과 재정에 관한 규칙 등을 모든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총회에서 제정한 후에 클럽 단체 명의로 금융거래를 실시해야 한다. 각 클럽은 법률적으로 법인에 준하는 단체(법률용어로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부름)이기 때문에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부터 클럽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는 마치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개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클럽정관, 회장(대표자) 선출 총회 회의록, 클럽도장, 사무실주소를 증명하는 임대계약서(많은 클럽이 사무실이 없이 사무장이나 임원이 재택근무 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구사무실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함) 등을 지참하고 클럽 대표자가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클럽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후에는 거래 금융기관에 가서 통장을 클럽명의로 개설하고 모든 거래를 하면 된다. 모든 재산의 취득·변경·상실을 클럽명의로 하게 된다. 심지어 부동산 취득도 클럽 이름으로登記할 수 있다.



둘째, 재정 투명화를 위한 회계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회원들의 정성이 담겨있는 회비와 각종 성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반드시 수입·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라인을 구축(예를 들면 사무장-재무-회장 등)하고 금전출납부와 영수증은 회원들이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비치해 놓는다. 회비 등은 가급적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나 은행이클럽명의로 발급해 준 카드를 사용한다. 또한 가능하면 매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또는 보고를 하여 주보나 메일·카톡 등으로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감사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회기 말 총회에서 결산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대부분 클럽들은 정관에 명시된 회계감사, 사업감사 등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심지어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 지극히 형식적으로 감사보고서에 사인을 한다. 수입지출 결산서도 회계일반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감사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불편하고 어렵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투명한 재정 운영방식을 따르지 않았던 클럽들이 문제가 되면 부정과 부패 의혹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클럽 회원들이 내는 회비나 성금이 올바르게 쓰여 지면 클럽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서 회원들의 마음이 열려서 자발적인 회원증강과 각종 성금이 증가할 것으로 믿는다. 재정투명화의 실천으로 회원들 간의 화합과 단결이 잘 이루어져서 로타리안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건강한 로타리클럽으로 거듭나야 발전이 있다. 송고한 로타리 강령과 네가지 표준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명실공히 〈초아의 봉사〉를 실천하는 즐겁고 행복한 보금자리 공동체가 되길 기원한다. ☺

변화의 힘: 사랑과 끈질김

글. 총재 장세호

로타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다. 세상을 좀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하여,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평화로운 공존의 생태계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모인 평범하지만 목적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조직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도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없다면 얼마 못 가 힘을 잃어 버리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모두가 힘을 합하여 긍정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내부적인 변화의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만 한다. 모든 움직이지 않는 생물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특징은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변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진정 우리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민감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나아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모델이 되어 조직전체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이끌어 가려는 사람은 단순한 지도자의 영역을 뛰어넘어 영웅이라는 영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진실된 변화를 이루어 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변화라는 간판을 단 조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1)변화를 말하는 사람; (2)변화를 시도해 보는 사람; 그리고 (3)변화를 실지 이루어 내는 사람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변화를 말하지만, 실지 자기가 말한 변화를 시도도 해 보지 못하고 임기를 끝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끔 변화를 어렵게라도 끝까지 노력하여 시도해 보는 사람도 있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어렵지만 혹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온갖 힘을 다해 작은 변화일지라도 실지 이루어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조직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실지 변화를 이루어 내는 사람들은 어떠한 능력을 갖추었기에 변화의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 그 비밀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리더십일까? 리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일까? 아니면 리더의 성격과 풍성한 끈임이 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 성공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로타리와 같은 자원 봉사조직의 경우 일반 조직들과는 다른 성공요소가 필요하다.

자원봉사 조직에 있어 변화의 힘은 “사랑”과 “끈질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자원봉사조직을 유지하

는 것은 사랑 바로 그 자체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되었던 변화의 궁극적 목적 역시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변화를 추구하는 리더는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을 충분히 보여 주어야 한다. 사랑이 없는 리더를 따라가는 자원조직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리더는 변화의 고객이 누구인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많은 경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 자체가 변화의 고객이다.

그렇다면, 리더는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자진해서 리더의 변화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자연스러운 교육과 토론을 요하게 된다. 리더는 중요한 변화의 가치와 조직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위사람들도 리더화 같은 변화를 꿈꿀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교환과 이해를 위한 열린 소통의 장을 자연스럽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리더의 비전 외에도 다른 비전들을 함께 논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사랑은 입을 열고 귀를 열게 해 준다. 사랑의 힘 그것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 준다.

끈질김이 두 번째 성공요소다. 과거의 리더는 강해서 쉽게 넘어지지 않는 리더였다면, 변화로 둘러 쌓인 지금 이 시대의 리더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금방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끈질김을 영어로 relentless라 한다. relent라는 단어는 거부하다가 마침내 동의하다 혹은 기세와 강도 등이 수그러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relentless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목적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뜻한다. 리더는 인기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따르지만, 리더가 인기가 없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질 때도 있다. 어떻게 되었던 리더는 변화의 목적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 어떤 환경의 변화가 들이닥쳐도 옳다고 판단된 변화를 일으켜나가기 위해서는 묵묵히 그 변화의 방향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끈질김은 고집과는 다르다. 고집은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품을 때 혼자서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우기는 것이다. 그러나 끈질김이란 주위의 사람들과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와 합의가 있으나 그 방향으로 전진해 나아감에 있어 너무 힘이 들어 모두가 포기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는 열정과 결심을 뜻한다.

로타리는 사랑과 끈질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조직이다. 내부적 발전을 위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외부적 봉사활동에 있어서도 소아마비박멸과 같은 질병예방봉사에 있어 사랑과 끈질김은 절대적 성공요소가기 때문이다. 사랑과 끈질김은 로타리리더들의 표적이다. 🌻





2018-19년도 로타리안 분담금 납부 안내

2018년 9월 현재 로타리 환율 1,110원

구 분		금 액	납 부 처	송 금 처	비 고
지 구	지구 회비	130,000원 × 회원수	국제로타리 3650지구 사무국 T) 02) 707-3650 F) 02) 702-3650	※ KEB하나은행 166-890034-16904 〈예금주〉 (사)국제로타리 3650지구	
	권장 납부기한 2018년 9월 30일				
국 제 로 타 리	R 회비	US \$32 × 회원수 × 로타리환율	국제로타리 한국지국 T) 02) 783-3077~8 F) 02) 783-3079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5호(미원빌딩) (07333)	※ 우리은행 189-04-100987 ※ 농협중앙회 044-17-000086 〈예금주〉 국제로타리 한국지국	(상반기(7월), 하반기(1월) 2회 납부 - 총 64달러)
	상반기 납부기한 2018년 10월 31일				
	하반기 납부기한 2019년 4월 30일				
	규정 심의회비	US \$1 × 회원수 × 로타리환율		(미화 1달러 / 1회 납부)	
	납부기한 2018년 10월 31일				
로 타 리 코 리 아	로타리코리아 구독료	13,000원 × 회원수	로타리코리아 T) 02) 730-2511 F) 02) 730-2515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930호(로얄빌딩) (03173)	농협 317-0005-3397-51 〈예금주〉 로타리코리아	
	납부기한 2018년 12월 31일				
한 국 로 타 리	1) 한국로타리 청소년연합 4,000원 2) 한국 로타리 총재단회관 관리비 1,000원	5,000원 × 회원수	한국로타리 총재단 및 (사)한국로타리 청소년연합 T) 02) 738-1501 F) 02) 732-584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930호(로얄빌딩) (03173)	농협 013-01-043783 〈예금주〉 한국로타리총재단	
	납부기한 2018년 12월 31일				

※ 연간 1인당 분담금 총액 : 약 220,000원 / 문의 : 3650 지구 사무국(02-707-3650)